Ballantine's

LEAVE AN IMPRESSION

Ballantine's®

5th. vol. Ballantine's Magazine

The 1st. Ballantine's Snow Golf Championship
제1회 발렌타인 스노골프 챔피언십

Special Interview
골프와 발렌타인을 사랑하는 방송인 서경석

Great Blends, Leave Great Impressions
발렌타인 17 골프 리미티드 에디션

변하지 않는 시간의 가치와 스포츠 정신을 공유하다
발렌타인 & 오메가

Discover the Legends
미리 경험하는 감동과 환희의 골프 토너먼트
2013 발렌타인 챔피언십

따뜻하고 달콤하게 즐기는 윈터 칵테일
발렌타인 17 핫초코 & 핫토디

Ballantine's

LEAVE AN IMPRESSION

Ballantine's Magazine

5th. vol.

CONTENTS

Entrepreneurial Spirit

04. George Ballantine's Entrepreneurial Spirit
조지 발렌타인의 기업가 정신을 되새기다
발렌타인 21과 만난 아티스트

Heritage

17. Great Stories of Luxury Brands
변하지 않는 시간의 가치와 스포츠 정신을 공유하다
발렌타인 & 오메가

Lifestyle

23. The 1st. Experience of Snow Golf in Korea
국내 최초로 선보이는 이색 겨울 스포츠
발렌타인 스노골프

28. The 1st. Ballantine's Snow Golf Championship
눈 위에서 펼치는 감동의 설(雪)전, 그 첫 번째 대회
발렌타인 스노골프 챔피언십

38. Special Interview
골프와 발렌타인을 사랑하는 방송인 서경석

40. Discover the Legends
미리 경험하는 감동과 환희의 골프 토너먼트
2013 발렌타인 챔피언십

Innovation

47. 2013 Ballantine's Championship Blend
우승자에 의한, 우승자를 위한 위스키
발렌타인 챔피언십 블렌드 2013

48. Great Blends, Leave Great Impressions
2013 발렌타인 챔피언십 기념 한정 위스키
발렌타인 17 골프 리미티드 에디션

Art of Blending

57. Ballantine's 17
따뜻하고 달콤하게 즐기는 윈터 칵테일
발렌타인 17 핫초코 & 핫토디

60. Ballantine's Mentoring Class
프레스티지 브랜드가 전하는 특별한 여정
위스키 클래스에서 만나는 발렌타인

Ballantine's & Women

65. Women in Ballantine's Snow Golf Championship
발렌타인 스노골프 챔피언십에서 만난
아름다운 여성 골퍼들

George Ballantine's Entrepreneurial Spirit

조지 발렌타인의 기업가 정신을 되새기다 발렌타인 21과 만난 아티스트

지난 4개월간 4명의 아티스트들은 발렌타인 21에 영감을 받아 창조해 낸 '발렌타인 21 아트 콜라보레이션'을 차례로 선보였다. 매거진 〈에비뉴엘〉을 통해 선보인 아름다운 작품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기업가 정신과 아티스트의 눈에 비친 발렌타인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았다.

01

02

03

04

* 작품에 대한 상세 정보는 다음 페이지에서부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Q1 _발렌타인과의 아트 콜라보레이션에 앞서 '발렌타인 21'이 어떤 영감을 주었는지?

Q2 _이번 작업을 통해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이 있다면?

Q3 _발렌타인에는 조지 발렌타인의 기업가 정신이 반영되어 있는데, 그 중 본인과 가장 닮아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Q4 _발렌타인과의 프로젝트는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작업 중 에피소드가 있었다면?

01

도자 디자이너 **손민영**

1 _술에 대한 지식이 없어 그 독특함을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힘들지만, 발렌타인 21의 향을 맡고 입안에 담았을 때 느껴졌던 강하면서도 은은한 감동이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됐습니다. 그래서 이 감동을 표현해 보자는 생각이 들었고요. 발렌타인 21을 통해 느껴지는 맛과 향에도 시간과 공간,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2 _가장 포인트를 둔 부분은 컬러입니다. 발렌타인의 오랜 숙성의 시간이 말해주는 깊은 컬러감을 작품에서도 느낄 수 있게끔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흙을 개발하기도 하고, 표면에서만 느껴지는 컬러가 아닌 그릇의 안에서까지 진하게 우러나는 컬러를 표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3 _우선 공예가라면 자신의 마음 속에 어느 정도의 장인정신을 품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저는 늘 새로운 것을 갈망하는 '선구자'적인 부분에서 저와 비슷한 접점을 찾았습니다. 매번 새로운 디자인을 선보이고, 다른 아티스트와 차별화된 재료를 찾고, 남들이 안된다고 하는 것들을 이루고 보는 성격이 조지 발렌타인의 기업가 정신과 일정 부분 닮아 있다고 생각해요. 혁신을 추구하다 보면 많은 난관에 부딪치게 되는데, 저 역시 그러한 난관에 울기도 하고 힘들어 하기도 했지만 결국 그걸 이겨냈을 때 본인만의 차별성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4 _기존의 작업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단지 과욕이었는지, 평소 술을 좋아해서인지는 아직도 알 수 없지만, 발렌타인을 통해 느끼는 감정들을 온전히 느끼고 싶어 작업실에서 발렌타인을 혼자 음미하다 잠든 적도 있었어요. 위스키에 약한 제가 매일매일 발렌타인에 빠져든 지 일주일 정도가 되었을까요? 그때부터 작품에 대한 스케치가 머릿속에 그려지더군요.

02

글라스 아티스트 **박성원**

1 _입체적인 작업을 하는 저로서는 이번 작품을 통해 발렌타인 21의 맛과 향이 자연스럽게 떠올려지도록 하는 부분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몰트와 그레인이 완벽하게 블렌딩되어 마침내 발렌타인이 탄생되는 것처럼 그 사이의 블렌딩 과정을 떠올렸고, 무(無)형의 위스키와 작품이 조화롭게 블렌딩될 수 있도록 작업했습니다.

2 _재료가 가진 특징, 즉 유리(Glass)가 가진 특성이 주제와 잘 부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가장 중점을 두었습니다. 설명하자면, 용해된 고온(약 1,200도)의 유리가 고체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그 특징이 작품에 남겨지도록 노력했습니다. 순간적인 작업이기도 하고, 마모되는 과정에서도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언뜻 보기에는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확히 같을 수 없는, 세상에서 하나뿐인 작품이 탄생되는 것입니다.

3 _'장인정신'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번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는 혁신을 추구하는 점이 작품 속에 많이 묻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유리를 가공하는 방법은 과거 14세기와 지금이 크게 다르지 않지만, 분명 추구하는 바가 다를 뿐만 아니라 과거의 유리 공예와 달리 현대미술에서 재료의 다양성은 'Glass Art'라는 복합적인 장르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 과정 속에서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4 _작업에 앞서 발렌타인을 경험할 수 있었던 테이스팅의 시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발렌타인의 역사, 의미, 블렌딩의 과정들을 총체적으로 알 수 있어 더없이 소중했고,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영감을 발견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 좋았습니다.

03

유리 공예가 **배진식**

1 _예전부터 위스키는 뭔가 진하고 독하다는 느낌이 머릿속에 있었는데, 발렌타인 21은 두세 잔을 마셔도 순하면서도 달콤한 향을 계속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작품을 제작할 때, 심도 있게 파고 들어가면서 결과물을 도출하는 스타일이라, 얼마나 자연스럽게 다가가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였습니다. 이번의 경우에는 오랜 시간 동안 숙성된 발렌타인 21의 깊이감이 저에게 자연스럽게 다가오더군요. 발렌타인 21은 제 작품의 깊이감을 같이하는 친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 _'순수한 자연'에 초점을 두었고, 유리, 금속, 나무 등의 작업 재료 중 자연물인 나무를 선택해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나무와 유리가 조화를 이루면서 혁신적인 느낌을 표현하고자 했고, 기존과 같이 연마나 형태를 만들기보다는 만들어진 형태에서 유리를 망치로 깨어 자연스럽게 금이 가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 뒤 조명을 넣고 빛의 굴절을 이용해 순수함을 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3 _앞선 작업 내용에서도 언급되었듯, 기존의 틀을 깬 새로운 것, 혁신적인 것에 대하여 갈망하고 집중하는 스타일이 조지 발렌타인의 '선구자'적인 측면을 닮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4 _위스키는 오랫동안 숙성이 되면 그저 비싸고 향이 좋은 것이라 생각했는데, 테이스팅을 하면서 발렌타인의 진면목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연물을 오랜 시간 동안 유지하고, 그 결과물의 블렌딩을 통해 완벽하게 조화로운 발렌타인이 탄생하는 것. 저마다 독특한 몰트와 그레인 위스키들이 어떤 블렌딩 과정을 거쳤기에 이렇게 부드러우면서 여러 맛과 향이 자연스럽게 배어 나오는지 궁금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발렌타인 40'도 테이스팅해 보고 싶습니다.

04

공예 작가 **한성재** *& 아날로기즘*

1 _발렌타인 21의 맛과 향도 영감의 원천으로 훌륭했지만, 더욱 마음이 이끌렸던 건 발렌타인의 전통 있는 블렌딩 과정과 주조 방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시류에 함몰되지 않고 자신들의 전통과 방식을 꾸준히 지켜오며 계승, 발전시켜 온 발렌타인을 통해 200여 년 동안 켜켜이 쌓인 시간의 두께만이 줄 수 있는 멋과 미가 있다는 걸 다시금 느끼게 해 주었습니다.

2 _발렌타인의 역사적 깊이와 제가 느끼는 우리 시대의 현대적인 감성을 조화롭게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조지 발렌타인의 발자취에서 그가 장인과 같은 올곧음, 청년 같은 도전 정신을 동시에 가진 사람임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 또한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번 작업에 임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3 _저와 굳이 비교하자면 '혁신을 추구하는 모습'이 닮지 않았나 생각되네요. 천천히, 다소 느리더라도 기본을 지키며 꾸준하게 오랜 시간 쌓여 오는 그 깊이와 원숙함을 간직하며 나아가는 것들이 진정한 가치의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발렌타인의 혁신 또한 그러한 역사적 토양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닐까 합니다.

4 _이번 작업은 작품의 형태와 소리, 그 안에 담긴 발렌타인의 색이나 감성까지, 무엇 하나 쉽게 넘어갈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1900년도 중후반에 나온 스피커를 사용하고 싶어 유닛을 고르는 데만 꽤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 그에 맞는 진공관 앰프를 따로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도 발렌타인 오크통의 재료와 동일한 목재를 사용한다든지 정통 악기류의 마감에 주로 사용되는 셸락을 발렌타인과 알코올의 혼합액에 녹여 사용하는 등 발렌타인 고유의 색을 표현하는 부분에 많은 초점을 두었습니다.

발렌타인 21년, 대나무로 퍼져 나가다

〈에비뉴엘〉은 12월호부터 프리미엄 스카치 위스키 브랜드 발렌타인과 아티스트 4명이 함께 창조해낸 작품을 소개한다. 각자의 분야에서 혁신의 역사를 쓴 이들이 발렌타인 21년을 만나 새로운 영감을 얻었다. 발렌타인 21년의 맛과 향을 새로운 방식으로 즐기기 위한 테이블을 설계한 아티스트, 그 첫 번째 주인공은 서양의 위스키를 동양의 대나무를 이용한 화병과 접시로 재해석한 도자 디자이너 손민영이다.

발렌타인 21년과 먹 시리즈. 거울 속 오브제는 '먹 화병', 지름이 다른 두 개의 디시는 '먹 접시'다.

* 위 기사는 매거진 에비뉴엘 2012년 12월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 대나무는 오리엔탈리즘을 표현하기 위한 소재였지만, 세라믹에 다른 재료를 더한다는 것은 당시에는 혁신적인 일이었죠. 덕분에 지금은 저의 시그너처가 되었지만요.

손민영은 대학 재학 시절 처음으로 발렌타인이라는 위스키를 마셨다. 미국에 자주 가던 친구가 귀국할 때마다 발렌타인을 한 병씩 선물로 사 들고 왔다. 홍대 미대생이라면 아르바이트만으로도 자동차 한 대는 너끈히 타고 다닐 수 있던 시대였다. 다른 이들이 포장마차에서 소주잔을 기울일 때, 그는 발렌타인의 녹진한 브라운 컬러를 비추어 보며 좋은 술이야말로 향기의 깊이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 전에 없던 새로운 작품으로 함께 테이블을 꾸며보자는 발렌타인의 제의를 받았을 때 손민영은 그때의 기억을 떠올렸다.

"발렌타인 21년을 마시자마자 검은색이 떠올랐어요. 서양 유채 물감의 검은색 말고 동양의 '먹'이 지닌 검은색이요. 먹은 옅은 색깔부터 짙은 색깔까지 수만 가지의 각기 다른 '검은색'을 품고 있어요. 발렌타인 21년의 깊고 다채로운 향 그리고 마신 후에 제 몸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변화와 감정을 설명하기에는 먹이 제격이라고 생각했죠."

깊이로의 혁신, 발렌타인 21년과 먹 시리즈

그는 발렌타인 21년의 깊은 맛과 향에 감복했다. 서양의 술 발렌타인에 향으로 표현되는 깊이가 있다면, 동양의 아티스트인 그에게는 도자가 표현하는 컬러의 깊이가 있다. 그렇게 그는 검은 몸통 위를 대나무가 줄줄이 감싼 화병과 접시를 만들었다. 화병은 테이블을 장식하는 요소이기 이전에 병 깊은 곳에서부터 뻗어 올라가는 발렌타인 21년의 아로마를 표현한 오브제다. 화병은 길죽한 물성의 대나무를 아름답게 표현하기에도 제격인 오브제였다. 지름이 다른 세 개의 '먹 접시'에는 병의 마개를 연 순간부터 주변으로 퍼지는 발렌타인 21년의 다채로운 향을 표현했다. 입이 넓은 접시에는 층층이 다른 스펙트럼의 '블루'를 표현할 수 있었다. 심해에서 끌어올린 듯한 블루. 그것은 흙이 주는, 자연의 깊이에서 우러나오는 컬러의 스펙트럼이다. "검은 흙에 코발트 안료를 넣어 모양을 만든 뒤 가마에서 구워내요. 그 위에 하얀 유약을 바르면 1280℃가 넘는 고온에서 구워지면서 푸른빛이 서서히 제 얼굴을 드러냅니다. 흙의 반죽부터 재료를 넣고 섞었기 때문에 표면에 유약만 바른 다른 작품과는 달리 깨뜨려도 내부까지 검죠." 재료 속에서 자연스레 올라오는 푸른빛은 표면만 물감으로 색칠한 인위적 색상에서 절대 찾아볼 수 없다. 들여다볼수록 신비롭고 빨려 들어갈 듯 깊은 바다의 색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이 깊은 색을 표현하기 위해 그는 몇 번이고 그릇을 다시 구워냈다. 코발트 안료와 철을 섞은 이 검은 흙은 현재 손민영의 이름으로 특허출원이 되어 있는 상태다. 재료비도 일반 흙보다 족히 스무 배는 더 비싸다. 품도 많이 가고 저렴하지도 않은 이 모든 고생을 감내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다. "도예계에 없는 새로운 스타일을 창조하고 싶었어요. 그동안 이렇게까지 정교하게 작품을 만드는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하지만 혁신은 그만큼의 가치가 있어요."

대나무로 재해석한 북유럽 디자인

아무도 하지 않는 고생을 사서 하는 그의 도전 정신이 발휘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98년, 세라믹은 세라믹 하나로만 만들 수 있다며 다른 재료와의 궁합을 누구도 신경 쓰지 않을 때, 그는 대나무를 발견했다. 북유럽 디자인 철학을 몸소 느끼고 온 후의 일이다. "1990년대 말 당시, 도예하는 친구들은 다들 미국으로 간 반면, 전 핀란드로 유학을 갔어요. 제가 다닌 헬싱키 예술대(UIAH, 지금은 알토 대학교로 병합)는 옛 도자기 공장 건물에 자리하고 있었죠. 아라비아라는 세계 굴지의 도자기 회사가 학생들을 후원하는 곳이기도 했고요." 자연과 주변 환경에 영감을 받는 실용적인 북유럽의 디자인 철학은 그의 진로를 180도 바꿔놓았다. 전통 청자에서 시작한 그의 작품 세계는 점차 현대적이고 일상생활에

1998년에 처음 생산을 시작해 선물용으로 큰 인기를 얻은 '대나무 컵'.

서 언제나 사용할 수 있는 대중성을 추구하는 디자인으로 거듭났다. 주변 환경에서 디자인의 요소를 찾는 북유럽의 디자인 철학은 그에게 주위를 둘러보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러다 동양에만 있는 재료, 대나무를 발견했다. 오늘날 도자계에 그의 이름을 아로새긴 그 대나무다. "당시에는 세라믹 외에 다른 재료를 작품에 더한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굳이 그런 시도를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덕분에 지금은 제 작품의 시그너처가 되었지만요." 대나무와 도자라는 안 어울릴 것 같은 둘의 조합을 성공시킨 혁신성이야말로 발렌타인이 그에게 러브콜을 보낸 이유다. 발렌타인의 혁신이 창업자 조지 발렌타인의 새로운 블렌딩법에서부터 시작되었듯, 기발한 재료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발렌타인과 손민영의 작품 세계는 그렇게 서로 닮아 있다. 대나무는 순전히 오리엔탈리즘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였지만 실제로 자작나무나 오크와 같은 나무는 세라믹과 어울리지 않거나 쉽게 부러져 사용할 수 없었다. 섬유질이 많아 잘 휘어지는 대나무는 곡선이 많은 도자에 사용하는 데 제격이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수많은 기업체의 선물용품으로 널리 사랑받는 '대나무 컵'이다.

도예하는 디자이너

"저는 디자이너예요." 작품과 디자인을 넘나드는 그의 정체성을 묻자마자 대답했다. "저는 작품 활동도 하지만 대중을 위한 디자이너로 더 오랜 세월을 보냈습니다. 디자인을 하며, 건축도 하고, 다른 장르와 컬래버레이션도 해요." 확실히 손민영은 일반에게 익숙한 이름은 아니다. 그러나 그를 알지는 못해도 파스텔컬러가 특징인 그의 단아한 식기를 본 적은 있다. 그의 디자인과 그 디자인의 카피 제품이 없었더라면 가로수길과 삼청동의 모던 한식당이나 일식집들은 어떤 그릇으로 손님을 맞았을까 싶을 정도다. 한국에서 도예가는 늘 그렇게 이름 없는 디자이너의 삶을 산다. "아쉽죠. 여태껏 국내 굴지의 식기 회사의 디자인을 많이 했고, 제 개인 작업도 해왔지만 저도 모르게 제 디자인을 사용하는 곳이 더 많거든요. 하지만 많은 곳에서 불법적으로 제 디자인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게 더 많은 사람이 도예품을 이용하는 계기가 된다면 괜찮아요. 그래야 후배들도, 저도 이 업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경험상 혼자 성공하기보다는 다함께 성공해야 시장도 커지고 더 발전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디자이너로, 도예가로 살아가는 손민영은 그만큼 활동 영역도 넓다. 그는 2010년에는 대학 시절 청자를 전공했던 경험을 살려 이탈리아 디자인의 거장 알레산드로 멘디니와 함께 〈알레산드로 멘디니의 청자〉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우리나라 전통 고려청자로 멘디니의 대표작들을 재탄생시키는 전시였다. 바로크 양식으로 꾸며진 멘디니의 플라스틱 체어 '프루스트(Proust)'가 곱디고운 청자로 거듭났다. 세라믹 주얼리도 다수 디자인했다. 2008년에는 H&M의 영국 매장 중앙에 그의 디자인으로 출시된 주얼리가 자랑스럽게 놓였고 DKNY, 쥬시 쿠튀르도 그와 협업했다. 지난 9월에는 가구 디자이너 최병훈과 컬래버레이션해 도자로 만든 아트 퍼니처를 전시하기도 했다. 5회의 개인전과 다양한 컬래버레이션을 통해 작품부터 세라믹 주얼리, 생활 소품, 타일로 꾸민 인테리어까지 그는 여러 방면에 손을 뻗쳤다. 자신을 내세우지 않으면서도 독특한 컬러와 실용성을 겸비한 그의 작품은 그렇게 어디든 잘 어울리는 옷을 입고 있다. 한국적 재료를 서양 스타일로 표현하는 손민영의 작품 세계는 늘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오묘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12월에는 그런 작품 세계가 녹아 있는 또 하나의 시그너처가 나온다. 지난 10여 년간 많은 사랑을 받아온 '대나무 컵'의 후속작이다. "왜 후속작을 내놓지 않느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많아 그 '아들'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발렌타인과의 협업을 마치면서 이전에 해오던 작업을 함께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어요. 덕분에 다음 단계에 대한 의욕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이번엔 어떤 발상의 전환을 보여줄지 궁금해 물어봤더니 이번에는 손잡이뿐 아니라 모양까지 대나무를 닮았다고 살짝 귀띔한다. 그 모양이 궁금하다면 12월 6일부터 코엑스에서 열리는 2012 홈 · 테이블데코페어에 가보시길. 새로운 모양의 '대나무 컵'과 함께 흙이 선사하는 깊고 넓은 컬러의 향연에 눈이 즐거워질 테니 말이다.

에디터 · 최동은, 사진 · 김정호, 기획 · 이상현(L153)

발렌타인 21년과 글라스 아티스트 박성원의 작품 'Mark' 시리즈.

발렌타인 21년, 얼음처럼 반짝이다

〈에비뉴엘〉은 프리미엄 스카치위스키 브랜드 발렌타인과 아티스트 4명이 함께 창조해낸 작품을 소개한다. 각자의 분야에서 혁신의 역사를 쓴 이들이 조지 발렌타인의 기업가 정신에 새로운 영감을 받았다. 발렌타인 21년의 맛과 향을 새롭게 즐기기 위한 테이블을 설계한 아티스트, 그 두 번째 주인공은 같은 모양이 나오지 않는 '몰드'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잔을 만들어낸 글라스 아티스트 박성원이다.

글라스 아티스트 박성원의 작품이 테이블에 하나하나 놓이는 모습을 보면서 노르웨이의 피오르를 떠올렸다. 수천, 수만 년이 지나도 한자리에서 세월의 층을 켜켜이 더해가는 아름다운 빙하 협곡. 얼음을 담을 아이스 버킷과 온더록스 잔, 테이스팅 글라스, 샷 잔까지 위스키를 즐기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글라스로 꾸민 발렌타인 21년만의 테이블은 햇살을 받은 협곡의 빙하처럼 반짝였다.

나무가 만든 우연의 예술

"모두가 순간적인 우연의 산물이에요." 젊은 작가는 에디터에게 작품을 이리저리 돌려 보여주며 말했다. "발렌타인 21년을 위해 테이블을 꾸며달라는 의뢰를 받자마자 이건 분명 재미있는 작업이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어떤 작업 방식으로,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금방 생각해낼 수 있었거든요." 그는 위스키를 잘 아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발렌타인만은 다른 위스키와 확연히 구분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오크통에서 오랜 시간 숙성되며 묻어나온 나무의 깊고 풍부한 향, 지난한 역사 속에서 발상을 전환하며 위스키 업계에 혁신을 불러일으킨 발렌타인의 원동력을 표현하고자 그는 가장 먼저 '몰드'라는 개념부터 확 바꿨다. '항상 똑같은 모양을 만드는 틀'에서 '절대 같은 모양을 내지 못하는', 그래서 오히려 단 하나뿐인 형태를 만들어내는 나무라는 소재를 사용하면서 말이다. "나왕이라는 나무를 베어 둥그렇게 돌려 대면서 틀의 형색을 갖춰요. 그 안에 고온의 유리 원액을 부으면 나무가 순식간에 타 유리에 거친 나뭇결 자국을 남기죠. 한 번 유리를 품고 나면 표면이 타 들어가 다시는 그와 같은 모양이 나올 수 없으니 이 모두 자연이 허락한 우연의 산물일 수밖에 없어요."

나무를 몰드로 사용하겠다는 박성원 작가의 말에 주변 동료들은 과연 그게 가능할까 되묻고는 위험하지 않겠느냐고 걱정했다. 우아하고 기품 있는 모양과는 달리 제작 과정은 남성미 넘치는 액션 영화가 따로 없기 때문이다. 1,400℃가 넘는 유리를 나무를 덧댄 틀에 부으면 순식간에 불기둥이 솟아오르고, 공업용 팬은 강한 압력으로 연기를 빨아들인다. 작업실은 어느새 그렇게 박성원과 그의 동료들이 떨어뜨리는 땀과 검은 연기, 윙윙거리며 돌아가는 팬 소리로 가득 찬다. "우리끼리는 이 작업을 '불쇼'라고 불렀어요. 불같이 뜨겁게 식도를 타고 넘어가는 위스키에 어울리는 작업이라며 농을 건네면서요."

얼음 없이도 온더록스처럼

힘든 과정을 보상하듯 우연의 신은 그에게 또 다른 선물을 주었다. 아래쪽에 받혀둔 나무는 제 몸을 태우면서 가스를 내보냈고, 가스는 유리잔의 바닥을 움푹 패이게 만들었다. 나뭇결이 촘촘히 새겨진 울퉁불퉁한 표면과 함께 높이 올라온 바닥 덕에 이 잔에 술을 따르면 이미 얼음이 깔린 것처럼 보인다. 온더록스 같지만 온더록스가 아닌 효과, 얼음 없이도 더없이 청량해 보이는 자연적 효과다. "이 잔에 실제로 술이 담겨 있으면 어떤 모양일지 상상해봤어요. 표면에 살얼음이 얼어 크리스털 잔처럼 영롱한 느낌이 날 것 같았죠. 잔에 붉은기가 섞인 금빛의 발렌타인 21년을 부으니 실제로 잔 속에서 옅고 짙은 컬러의 스펙트럼을 보여주더군요." 덕분에 박성원의 작품을 손에 든 사람들은 술을 마시는 걸 잊은 듯 너도나도 잔을 감상하기에 바빠진다.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불빛에 잔을 비춰 보면서. "제 작품은 생활 유리로서 대중성이 떨어져요. 두 번 다시 같은 모양을 낼 수 없고, 대량생산도 할 수 없는 핸드메이드 제품이죠. 하지만 저는 공예의 느낌이 물씬 나는 이런 오브제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람들의 수준이 높아졌다고 생각해요. 이 작품을 감상하는 사람들의 모습만 봐도 느낄 수 있거든요."

발렌타인과의 컬래버레이션으로 스스로도 만족하는 새로운 작업 방식을 만들어낸 그는 이제 또 다른 스텝을 준비 중이다. "여름에 열릴 개인전을 준비하고 있어요. 위태위태해 보이는 유리 의자를 만든 기존 작업을 할지, 나무를 이용한 작업을 이어갈지, 아니면 전혀 보여준 적 없는 다른 스타일을 선보일지 아직 말씀드릴 순 없어요. 다만 저만의 스타일을 더욱 섬세하게 가다듬고 있으니 충분히 기대하셔도 좋을 겁니다."

에디터 · 최동은, 사진 · 김정호, 기획 · 이상정(L153), 문의 · 페르노리카 코리아(3466-5700)

* 위 기사는 매거진 에비뉴엘 2013년 1월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발렌타인 21년, 자연의 다이아몬드를 발견하다

〈에비뉴엘〉은 프리미엄 스카치 위스키 브랜드 발렌타인과 아티스트 4명이 함께 창조해낸 작품을 소개한다. 각자의 분야에서 혁신의 역사를 쓴 이들이 조지 발렌타인의 기업가 정신으로부터 영감을 받았다. 발렌타인 21년의 맛과 향을 새롭게 즐기기 위해 테이블을 설계한 세 번째 아티스트는 깨뜨린 유리로 빛의 마법을 선사한 유리공예가 배진식이다.

배진식 '발렌타인을 보다', 유리에 소나무, 2013

1 받침대의 로고도 상감기법을 이용한 수작업으로 마무리했다.
2 '발렌타인을 보다'는 길어진 오크통에 발렌타인 21년이 쏙 들어간 모양이다.

에디터 · 최동은, 사진 · 김정호, 기획 · 이상정(L153 Art Company), 문의 · 페르노리카 코리아(3466-5700)

척박한 환경에서 꽃을 피울 때 아름다움은 더 빛이 난다. 내뱉는 입김마저 얼어버릴 것 같은 추운 날, 창문에 맺힌 성에가 다이아몬드처럼 빛을 낸다. 유리공예가 배진식이 발견한 유리의 매력은 겨울 햇살에 반짝이는 눈꽃에 비견될 만하다. "유리는 재미있는 소재예요. 표면이 매끄러울 때는 빛을 그대로 통과시키지만 조금이라도 금이 가면 빛이 굴절되어 전과는 다른 성질처럼 보이거든요." 그는 우리가 오래 알고 지냈던 유리의 모습처럼 블로잉하지 않고, 자르지도 않고 발렌타인 21년의 굴곡을 따라 유리를 깨서 조명을 만들어냈다. 발렌타인 21년을 마신 후의 느낌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다. 조명 안, 유리 단면에 투영된 빛은 겨울날의 눈꽃처럼 영롱하게 빛난다. "발렌타인 21년을 처음 마셨을 때, 깊은 맛과 향에 반해버렸어요. 21년이라는 시간을 오크통 안에서 인고하며 보냈으니 그 안에 담아둔 이야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오랜 시간을 거슬러 이제 빛을 발하기 시작한 발렌타인 21년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조명이 완벽한 오브제로 손색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유리를 깨자 굴레도 깨졌다

배진식의 2013년 첫 작품 '발렌타인을 보다'는 그의 설명 그대로 '길쭉하고 세련되게 변한 오크통'의 모습을 하고 있다. 어른 키만 한 크기의 조명은 나무와 유리로 군더더기 없이 마감되어 고고한 자태를 뽐낸다. 이번 작품은 그동안 시도해보지 않은 작업 방식이었다는 점에서 발렌타인은 물론 배진식 작가 본인에게도 의미가 깊다. 그는 유리를 깨고, 그동안 가지고 왔던 작업의 굴레도 깼다. 그가 새로운 작업을 대중에 공개한 것은 5년 만이다.

"처음부터 유리를 깨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재단 과정에서 잘못해 유리가 조금 깨졌는데, 그 느낌이 독특하더라고요. 빛이 굴절되는 모습이 판으로 된 유리보다는 두꺼운 통유리에서 더 재미있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사실 그가 유리를 처음으로 깬 아티스트는 아니다. 여러 장의 판유리를 겹친 후 단면을 쪼아 형태를 만드는 작업은 다른 글라스 아티스트들도 했고, 그 역시도 종종 했던 방법이다. 다만 두터운 유리를 깨고 그 안에 빛을 심는다는 것은 그 자신에게도 도전이자 혁신이었다. 그리고 그 길은 세상의 모든 혁신이 그랬듯 녹록지만은 않았다. 특히 이번 겨울 20년 만에 몰아친 강추위는 맹적이었다. 뜨거운 연기가 치솟는 블로잉 과정이 없었던 대신, 한번 작업을 시작했다 하면 몇 시간을 얼음장처럼 차가운 물에 손을 담가야 했다. "통유리를 사용하려면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어 스크래치를 없애야 하는데, 기계로 사포질하는 작업을 열댓 번은 해야 말끔해져요. 마찰 때문에 표면에 열이 생기면 유리가 깨지기 때문에 반드시 물을 뿌리면서 해야 하죠. 덕분에 일하다 손을 녹이기를 몇 시간씩 반복하면서 날이 따뜻해지기를 기다리며 작업을 진행했어요. 이번 겨울은 정말 힘들었네요."

1

2

나무를 사랑한 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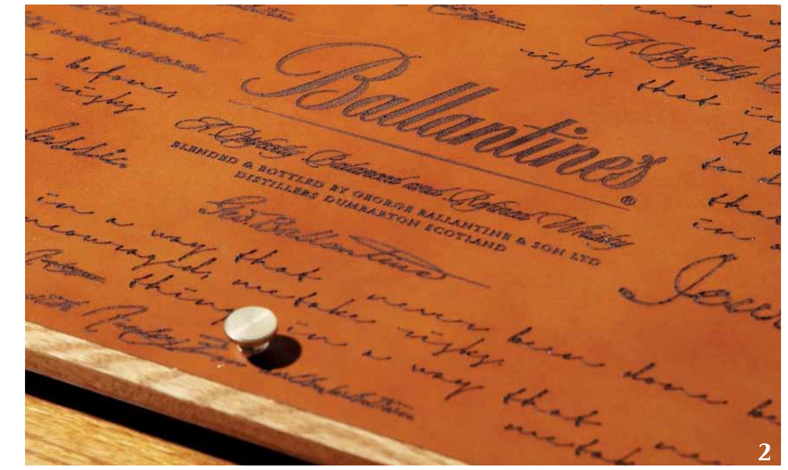
유리공예가이기 이전에 '맥가이버'라 불리는 그답게 나무를 가공하고, 전구를 넣는 과정은 오히려 어렵지 않았다. 금속과 유리공예를 전공하고 목공예에 취미를 붙인 그는 몇 년 전부터 집도, 작업실도, 그 안에 들어가는 가구들도 모두 두 손으로 직접 만들었다. "나무는 예전에도 종종 사용했던 재료예요. 금속공예나 유리공예를 할 때 없어서는 안 될 재료이기도 하죠. 차가운 금속의 느낌을 중화해주는 것도, 깨지기 쉬운 유리를 지탱해주는 것도 나무의 역할이니까요." 가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단단한 원목과 누르면 움푹 들어갈 정도로 무른 원목들 사이에서 뒤틀림 없이 깨끗한 한 통의 나무를 고른 그를 보면 어느새 나무 전문가의 모습을 갖춘 듯하다. 그는 새로운 소재와 방법을 더한 이번 작업을 하면서 다음 작품에 대한 영감을 받았다. "발렌타인과의 컬래버레이션은 흥미로웠어요. 최근에 시도하고 있던 나무와 유리의 결합, 그리고 제품에 자연을 담는다는 발렌타인의 정신이 제가 추구하던 방향과 일치했거든요. 자신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었다던 어느 배우의 수상 소감처럼 저 역시 발렌타인 21년이 지은 밥상에 살며시 수저 한 벌을 올려놓은 것이랄까요." 겸손하게 말하고는 미소 짓는 배진식 작가에게 다음 계획을 물었다. "집과 작업실을 짓느라 고 몇 년간 전시에 신경을 쓰지 못했는데 지금 새로운 작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발렌타인을 보다'처럼 유리에 나무를 결합한 작품과 금속, 빛을 사용한 작품 등을 시도하고 있어요. 늦어도 가을 즈음에는 개인전을 열어 더욱 다양한 저의 작품 세계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 위 기사는 매거진 에비뉴엘 2013년 2월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1

발렌타인 21년, 소리를 창조하다

〈에비뉴엘〉은 프리미엄 스카치위스키 아티스트 4명이 함께 창조해낸 작품을 소개한다. 각자의 분야에서 혁신의 역사를 쓴 이들이 조지 발렌타인의 기업가 정신으로부터 영감을 받았다. 발렌타인 21년의 맛과 향을 새롭게 즐길 수 있는 테이블을 설계한 아티스트, 마지막 주인공은 발렌타인 21년이 깃든 오디오 테이블을 완성한 공예 작가 한성재다.



2

1 한성재 'D. Horn', 730×780×810mm, 2013
2 오디오 커버에 발렌타인의 역사에 관한 문구들을 아름다운 필기체로 새겼다.

예전에 한 디자인 페어에서 한성재 작가의 작품을 처음 접했다. 당시 '바오'라는 디자인 그룹에서 활동하던 그는 오디오와 가구가 결합된 작품을 선보였는데 에디터를 포함해 많은 사람에게 신선한 충격을 선사했다. 나비가 비상하는 듯 역동적인 디자인이 돋보이는 도킹 스피커가 잔상에 남은 그날 이후, 2년 만에 만난 작가는 '역시 한성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아름답고 정교한 오디오 테이블을 들고 왔다. 표면에 발렌타인 21년을 발랐다는 그의 오디오 테이블에는 예상했던 알코올 향 대신 정성스레 칠하고 말린 왁스 향이 그윽했다.

"발렌타인 21년의 깊고 짙은 브라운 컬러처럼, 저도 월넛같이 어두운 컬러의 원목을 좋아해요. 가구에 색을 내기 위해서는 염료를 칠하는데, 그렇게 인공적으로 색깔을 입히는 것이 썩 내키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언젠가 친구들하고 위스키를 발라서 색을 내보자고 했던 농담이 떠올랐어요. 반신반의하며 발렌타인 21년을 가구에 칠해봤더니 의외로 좋은 빛깔이 나왔죠." 하지만 이런 획기적인 방법에도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으니, 알코올이 쉽게 날아가버린다는 점이었다. 그 후 대안으로 선택한 것이 나무 진액이다. 자연스러운 색감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이 진액을 발렌타인 21년에 넣어 1주일에 걸쳐 녹이고 섞었다. 단어 그대로 '발렌타인 21년 컬러', 작가가 발렌타인과의 작업을 의뢰받자마자 떠올렸던 바로 그 컬러였다. "전부터 발렌타인과 저는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고 있어 작업 의뢰를 받고 기뻤어요. 선호하는 컬러는 물론 역사와 전통을 중시하는 클래식한 감성도 잘 맞았기에 이번 작업은 제게 남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뒤엎는 혁신만이 능사가 아니다

홍익대학교에서 목조형가구를 전공한 그는 나무를 만지는 사람답게 세월의 흔적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나무도, 가죽도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의 손때가 묻어야 아름다워진다는 것이다. 그런 작가에게 '혁신'은 세상이 말하는 혁신과는 다른 의미다. 적어도 혁신에 있어서만큼은 그는 발렌타인의 창업자인 조지 발렌타인과 뜻을 함께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혁신이란 100% 성장률을 기록하거나 이전의 것을 뒤엎어버리는 정도의 과감한 변화죠. 하지만 조지 발렌타인을 보세요. 그는 대대로 내려오는 역사와 전통을 계승해 방향을 조금 튼 것만으로 위스키 업계에 굉장한 혁신을 가져온 사람이잖아요. 제게도 혁신이란 그렇게 과거의 것을 중시하면서 작은 발전들을 거두는 것입니다. 저 테이블도 지금보다는 10년 후, 사람의 손길이 한참 거친 후 더 멋있을 거예요. 모든 것은 추억이 입혀질 때 더 아름다워지니까요. 위스키도 마찬가지고요." 술을 즐기지 않는 그는 이번 작업을 통해 술이 지닌 진정한 '시간의 의미'를 깨달았다고 말한다. 연산마다 가지는 미묘한 차이는 그에게 새로운 충격이었다. "일전에 저연산 위스키를 마시고 역한 기분이 든 이후, 위스키를 마시지 않았어요. 하지만 발렌타인 21년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코끝으로 향이 올라올 때, 입안에 머금었을 때, 목을 타고 넘어갈 때, 이 모든 순간이 다 다르게 느껴졌죠. 왜 위스키 애호가들이 높은 연산을 따지는지 단번에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1930년대 빈티지 스피커와 마리아주

한성재 작가는 작업을 위해 발렌타인의 역사를 돌이켜보다 발렌타인의 역사가 오디오보다 깊은 것을 알고는 놀랐다. 1827년에 첫 위스키를 생산한 발렌타인과 1877년 에디슨이 처음 축음기를 만들면서 시작된 오디오의 역사는 분명 차이가 있다. 하지만 두 업계 모두 애호가들이 중심이 되어 한 걸음 한 걸음씩 발전을 거듭해 오늘날까지 이르렀다는 공통점이 있다. 작품을 찾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 내장되는 오디오 시스템을 달리하는 그는 특히 1930년대 빈티지 스피커가 그런 공통점을 대변한다고 생각했다. "스피커마다 각 특성이 있는데 최신형 스피커는 고음이 뛰어나고, 오래된 스피커들은 풍부한 저음이 주는 특유의 감성이 있어요. 제게 발렌타인이란 빈티지 스피커가 내뿜는 중후한 사운드를 떠올리게 해 저음을 살리는 스피커와 진공관 앰프를 작품에 넣었죠. 특히 1930년대는 오디오가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때라 의미가 더 깊다고 할까요."

다음 계획을 묻자 그는 이제 감성을 자극하는 작품을 만들고 싶다고 말한다. 소리가 잘 나는 실용적인 스피커도 좋지만, 스피커의 기능으로 인해 원하던 디자인과 타협하는 일들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올해는 스스로 타개책을 찾았다. "제 작품을 찾는 분들은 이미 수천만원짜리 오디오룸을 갖춰놓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듣기보다는 감상하기 위해 제 작품을 찾으시는 것이죠. 올해는 함께 작업하는 3명의 '아날로기즘' 멤버들과 함께 '아날로기즘'과 '그랜드 아날로기즘'이라는 두 가지 브랜드로 실용성과 작품성을 모두 충족시킬 예정이에요. 아날로기즘은 제작비를 낮춰 대중적으로 다가갈 준양산 체제의 브랜드로, 그랜드 아날로기즘은 철저히 작품성에 중점을 두는 브랜드로 만들 겁니다. 늦어도 올 하반기에는 아날로기즘의 쇼룸에서 만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 중이니 기대해주세요."

닫힌 커버를 열면 숨어 있던 스피커와 진공관 앰프가 모습을 드러낸다.

에디터 최동은 사진 김정호 기획 이상정(L153 Art Company) 문의 페르노리카 코리아(3466-5700)

* 위 기사는 매거진 에비뉴엘 2013년 3월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발렌타인 21년, 세상에 하나뿐인 작품을 완성하다

〈에비뉴엘〉은 4개월에 걸쳐 프리미엄 스카치 위스키 발렌타인과 아티스트 4명이 함께 창조해낸 작품을 소개했다. 각자의 분야에서 혁신의 역사를 쓴 이들이 조지 발렌타인의 기업가 정신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발렌타인 21년의 맛과 향을 즐기기 위한 테이블 컨디션을 설계했다. 이들의 손을 거친 발렌타인 21년은 세상에 하나뿐인 예술 작품으로 다시 태어났다.

술에 관한 가장 오래된 진리가 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인 성서를 통해 2천 년 이상의 세월을 지나며 세계적으로 검증받은 이 불멸의 진리는 발렌타인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위스키의 새로운 블렌딩법으로 혁신의 역사를 다시 썼던 발렌타인은 자신을 담을 '새 부대'가 필요했고, 이를 위해 네 명의 혁신적인 아티스트들과 만났다. 발렌타인의 창립자 조지 발렌타인이 그러했던 것처럼, 기존의 틀을 뛰어넘는 새로운 사고와 장인 정신을 가진 네 명의 아티스트들이 그의 기업가 정신과 철학에서 영감을 받아 발렌타인 21년을 음미하기 위한 최상의 테이블 컨디션을 만들어냈다. 일상에서 접하는 평범한 오브제들이 아티스트의 손을 통해 재탄생되었다.

발렌타인 21년의 네 가지 해석

인생의 방향이 겹치지 않았던 작가들의 컬래버레이션 작품은 각기 달랐지만 발렌타인 테이스팅을 통해 발렌타인 21년이 담고 있는 깊은 오크 향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공통분모가 있었다. 이들은 같은 위스키를 마셨지만 해석은 각기 달랐다.

세라믹 아티스트 손민영은 직접 반죽한 점토에 건조한 대나무를 더한 화병과 접시 '먹 시리즈'를 선보였다. 작품에 더해진 대나무는 그에게는 오리엔탈리즘의 발현이요, 세라믹 외에는 좀처럼 다른 재료를 붙이지 않는 도자계에서는 혁신이었다. 소나무 보드에 발렌타인 21년의 보틀 모양을 한 유리 조명 '발렌타인을 보다'를 탄생시킨 유리공예가 배진식은 이 작품을 "오크 통이 길고 날씬해진 모습"이라 표현했다. 오디오 가구 아티스트 한성재 작가는 아예 위스키의 오크 통과 같은 재료로 오디오 테이블 'D. Horn'을 제작했다. 오크 소재의 몸체와 발렌타인의 역사에 관한 문구가 쓰인 커버를 열면 숨어 있던 그의 빈티지 오디오가 나타나는데, 발렌타인 21년을 섞은 나무 진액을 표면에 발라 의미를 더했다. 유리공예가 박성원은 유일하게 작품에 나무를 드러내지 않고 나무의 결을 사용했다. 그는 나무로 만든 틀에 유리 원액을 부어 말 그대로 나무를 '불살라'버렸다. 타 들어간 나무 자국은 유리 겉면에 남아 마치 부유하는 빙하 같은 위스키잔 'Mark'를 완성해냈다.

변치 않는 가치를 지닌 최상의 위스키, 혁신적인 작품

시리즈로 이어지는 연작이 많은 작가에게 혁신이란 그동안 손에 익었던 모든 작업 과정을 뒤로하는 일이다. 해오던 방식을 버린 그 순간, 영원히 떠오르지 않을 것 같던 혁신의 아이디어는 선물처럼 찾아왔다. 배진식 작가는 '발렌타인을 보다'를 통해 유리를 불지 않고 깨어가며 오브제를 만드는 전례 없는 작업을 선보였다. 유리의 깨진 단면이 빛을 받아 반짝이는 모습을 보면서 조명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은 것이다. 유리공예가 박성원은 항상 같은 모양을 만들어내는 '틀'에 대한 관념에 의문을 제기했다. 뜨거운 유리를 부으면 타버려 두 번 다시 같은 모양을 낼 수 없는 그의 나무 '틀'은 모순이어서 더 의미 있고 흥미롭다. 작품에 앞서 아예 혁신의 정의를 다시 내린 한성재 작가도 있다. "한국 사회가 말하듯 다 뜯어 고치는 혁신은 혁신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그는 세월의 흔적을 따라 가며 조금씩 발전하는 것이 혁신이라는 정의를 내렸다. 그리고 그를 포함한 네 명의 작가 모두는 이 혁신을 다음 작업을 위한 아이디어이자 교두보로 삼았다. 그렇게 발렌타인 21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도 새롭게 하는 혁신의 위스키가 되었다.

1 배진식 '발렌타인을 보다', 2013
2, 3 손민영 '먹 화병' '먹 접시', 2012
4 한성재 'D. Horn', 730×780×810mm, 2013
5 박성원 'Mark', 유리, 2012

* 위 기사는 매거진 에비뉴엘 2013년 4월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Heritage

01

Journey to Ballantine's

시간을 담는 아름다운 기계를 창조하는 브랜드가 있다.
시간이 빚어내는 최상의 블렌딩을 실현하는 브랜드가 있다.
위스키의 고향 스코틀랜드와 시계의 고향 스위스를 대표하며
전 세계적으로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두 명품 브랜드,
발렌타인과 오메가의 시간은 흐른다.

Great Stories of Luxury Brands

변하지 않는 시간의 가치와 스포츠 정신을 공유하다
발렌타인 & 오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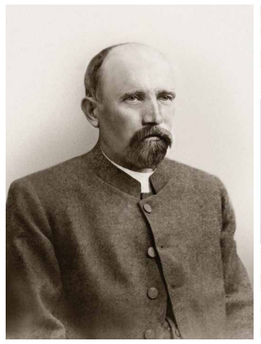
98%가 녹지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적절한 강수량,
크게 4곳으로 나뉘는 지역마다 품고 있는 서로 다른 풍미.
스코틀랜드가 위스키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에는 이러한 환경적
요인이 큰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다.
시계 산업의 심장부로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스위스 역시
걸어 다닐 수 없을 만큼 많은 눈이 내리고 1년 중 가장 긴 겨울을
나기 위한 방법으로 시계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현재에 이르렀다.
이 두 나라를 이끄는 스카치 위스키와 시계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발렌타인과 오메가를 각각 떠올리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치 않다. 발렌타인 챔피언십을 함께 공식 후원하는 등,
들여다 볼수록 다양한 교차점을 지니고 있는 두 프리미엄
브랜드가 남긴 발자취와 그 유산을 따라가 본다.

시간을 담은 명작을 탄생시키는
고유의 헤리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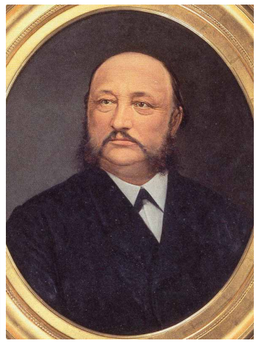
1827년, 19세의 조지 발렌타인(George Ballantine)이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 첫 상점을 열고 위스키 사업을 시작하면서 장장 200년이 넘는 발렌타인(Ballantine's) 역사의 첫 장이 열린다. 조지 발렌타인은 몰트와 그레인 위스키를 이상적으로 혼합시킨 블렌디드 위스키를 만들어 내는 획기적인 기술로 1853년 마침내 고연산 블렌디드 위스키를 상품화하는 데 성공했다. 이를 통해 발렌타인은 프레스티지 블렌디드 위스키 시장의 새 장을 엶과 동시에 위스키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1895년 스코틀랜드를 방문한 '빅토리아 여왕'이 기존 몰트 위스키와는 다르게 부드럽고 풍부한 맛을 지닌 위스키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조지 발렌타인의 가게를 찾은 것을 계기로, 발렌타인은 일찍이 스코틀랜드를 넘어 국제적인 명성을 뻗어가기 시작했다. 발렌타인 위스키 특유의 복합적이면서도 부드럽고 조화로운 맛과 향에 감동 받은 여왕은 조지 발렌타인에게 왕족 칭호를 내리고, 왕실의 공인 인증서나 다름없는 '로얄 워런트(Royal Warrant)'를 수여했다. 그 후 스코틀랜드 왕립 문장원 역시 1938년에 품격 높은 신뢰를 상징하는 '그랜트 오브 헤럴딕 암즈(Grant of Heraldic Arms)' 문장을 수여하면서 발렌타인을 '스코틀랜드 귀족 사회의 품격 있는 브랜드'로 인정했다.

명품 시계 브랜드 오메가의 역사는 1848년, 루이 브란트(Louis Brandt)가 23세의 나이로 스위스 라 쇼드퐁에 포켓워치를 조립하는 공방을 만들면서 시작됐다. 당시 스위스에는 시계나 보석의 부품을 정밀한 세공술로 만들어 내는 장인들이 많았는데 브란트는 그 부품들을 구입하여 완제품으로 만든 뒤 자신의 이름으로 유럽 전역에 판매했다. 곧 그의 명성은 유럽 전역에 퍼졌고 시계를 사기 위해 수년을 기다리는 이들이 생겨났다.
루이 브란트의 시계는 획기적인 시계 부품, '19 라인 포켓 칼리버(19 Line pocket caliber)'로 주목 받게 된다. 이 무브먼트는 1894년 당대 최고의 시계 장인이었던 프랑수아 슈빌라(Francois Chevillat)가 발명한 것. 이를 통해 표준화된 생산 체제와 뛰어난 정확도를 구현하게 되면서 그동안 부유층의 전유물이었던 시계가 대중화되는 '시계 기술의 기념비적 발전'을 가져올 수 있었다. 이 때부터 루이 브란트의 시계 공방은 '기술의 완성'이라는 뜻으로 그리스 문자의 마지막 자인 'OMEGA'라는 이름을 갖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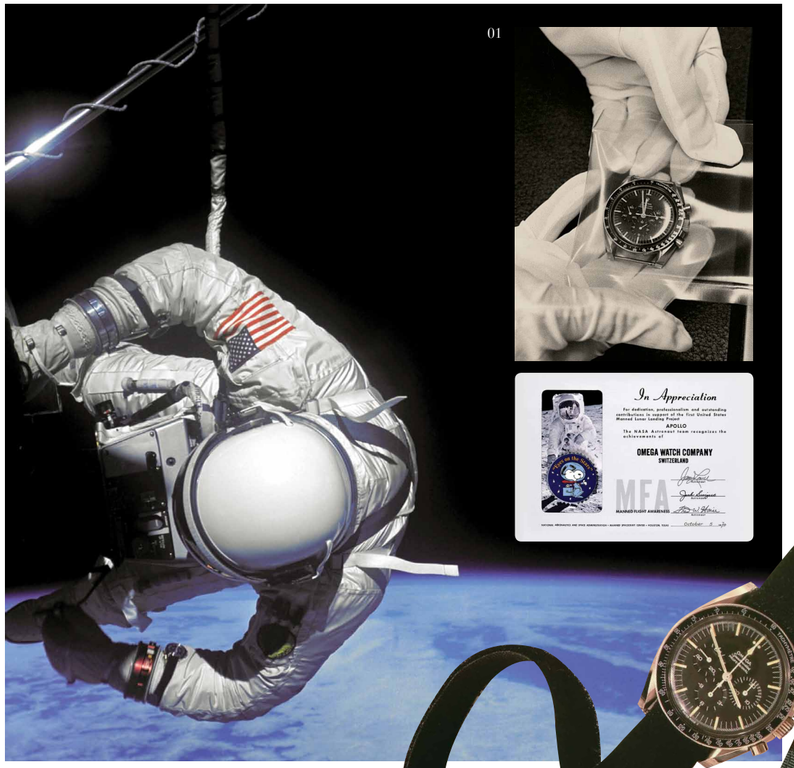
01



02



>>
01. 발렌타인의 창시자, 조지 발렌타인
02. 오메가의 창립자, 루이 브란트



>>
01. 02. 달에서 착용한 최초의 시계,
오메가 스피드마스터
03. 오랜 올림픽과의 관계를 기념하기
위해 제작된 올림픽 타임리스 컬렉션
04. 1936년 올림픽 당시 오메가의 광고
05. 올림픽에 사용된
육상 출발 신호를 알리는 총

02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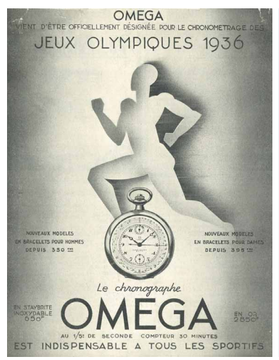
SPIRIT

미래를 내다보는 눈과
과감한 도전 정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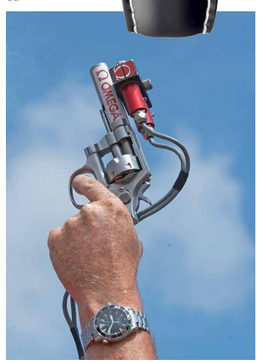
오메가를 정의하는 것은 개척 정신(Pioneering Spirit)이다. 오메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어렵고도 매력적인 모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온 브랜드다. 여섯 번의 달 착륙을 포함한 우주 정복, 1932년 출시된 최초의 다이버 워치, 어떠한 브랜드보다 많은 정밀도 기록의 수립, 올림픽 대회 25회를 포함하여 세계 정상급의 스포츠 타임키핑, 오직 태양열에 의존하여 지구를 일주 회전하도록 설계된 비행기 등 그 예는 무궁무진하다.

발렌타인과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은 따로 떼어놓고 설명하기 어렵다. 발렌타인이 말하는 기업가란, 미래를 내다보는 선지자(Visionary)이자 새로운 사고를 지향하는 선구자(Pioneer)이며, 시대를 초월하여 브랜드 가치를 일관성 있게 지켜가는 이 시대의 장인(Craftsman)이기도 하다. 조지 발렌타인은 이러한 기업가 정신의 표본으로, 그의 선견력과 차별화된 사고, 투철한 장인정신은 오늘날 폭넓게 사랑받는 위스키 브랜드를 탄생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04



05



INNOVATION

02

03

최초의 시도와 혁신이 낳은
유일한 가치

두 브랜드를 대표하는 정신은 남들이 하지 않은 것을 먼저 시도하고 또 그것을 최초로 실현해 낼 수 있게 하는 근본적인 힘이 되고 있다. 발렌타인은 고연산 위스키의 시초이자 프레스티지 블렌디드 위스키 시장을 개척한 위스키로 평가 받고 있다. 왕실로부터 스코틀랜드 국기를 발렌타인 라벨에 사용하는 것을 최초로, 그리고 유일하게 허가 받았으며, 이 라벨에 새겨진 고유의 문장에서 깃발은 스코틀랜드를 대표하는 정통 스카치 위스키로서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있다.
골프와 발렌타인의 만남은 현재의 '발렌타인 챔피언십'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발렌타인 챔피언십은 국내에서는 최대 규모이자 최초의 유러피언 PGA 국제 골프 토너먼트로 오는 4월 25일부터 28일, 그 6번째 대회를 앞두고 있다. 지난 2월 한 달 동안 아난티 클럽 서울에서 진행된 스노골프 또한 발렌타인의 후원을 통해 아시아 최초로 국내에서 개최된 경기다.

오메가는 1848년부터 현재까지 시계 역사의 기술과 디자인 발전에 있어 선구자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 달에서 착용한 최초의 시계가 바로 오메가의 스피드마스터(Speedmaster)로, 인류가 달에 처음 착륙한 때부터 현재까지 미국과 러시아의 우주 작전에서 유일하게 사용되며 또 허용되고 있는 시계 브랜드다.
또한 오메가는 모든 올림픽 종목의 공식적인 타임키퍼(Official Timekeeper)로 선정된 최초의 시계 회사이기도 하다. 1932년 LA 올림픽을 시작으로 스포츠 타이밍 분야에서 오랫동안 선구자적인 위치를 지켜온 오메가는 이후 25회에 걸쳐 올림픽의 공식 타임키퍼로 활약해 왔으며, 1952년에는 1000분의 1초까지 측정하는 측정기를 최초로 발명, 스포츠 기록의 새로운 장을 열기도 했다. 오메가는 가장 적극적인 스포츠 마케팅을 하는 브랜드 중 하나이기도 하다. 오랫동안 골프가 세계적인 스포츠로 발전하도록 적극 지원해 온 오메가는 발렌타인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2013 발렌타인 챔피언십' 역시 공식 후원할 예정이다.

>>
01. 발렌타인의 문장이 직접 새겨져 있는
발렌타인 40년 보틀
02. 발렌타인 40년을 합작한 세공 장인
리차드 폭스(좌)와 마스터 블렌더 샌디 히슬롭(우)
03. 발렌타인 챔피언십 우승자 트로피
04. 스카치 위스키 중 유일하게 스코틀랜드 국기를
사용할 수 있는 발렌타인 고유의 문장

CRAFTSMAN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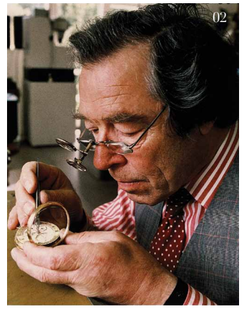
천재적인 장인의
손끝에서 완성되는 걸작

20세기 초반 오메가의 장인들은 현란한 주머니 시계를 제작함으로써, 단순히 시계 제작 기술뿐만이 아니라 예술가로서의 기질 역시 최고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 증명했다. 당시 희고 빨간 금으로 꽃을 조각하고 그 속에 에메랄드를 채워 넣은 아름다운 시계들은 완벽한 정밀도와 더불어 예술적 가치도 함께 가지고 있었다.

1999년 오메가는 정밀 탈진기가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충족시켜 주면서도 정확성과 신뢰도가 높은 코-액시얼 탈진기(Co-Axial Escapement)를 발표하면서 디자인뿐만 아니라 오메가의 장인정신을 기린 진보적인 기술의 최고 경지에 한 발 더 가깝게 다가서고 있다. 탈진기는 시계의 매커니즘을 조절하는 밸런스의 진동을 유지하는 역할로써 간단히 말해 기계식 시계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다. 오메가 코-액시얼 탈진기는 내부 기계에 에너지를 전달하는 부품간의 마찰을 줄여주어, 오랜 시간 동안 시계의 정확성을 유지시켜 주며, 시간의 흐름에 영향을 받지 않는 매우 견고한 안정성으로 시계의 잔고장을 줄여준다. 코-액시얼 탈진기의 창시자 조지 다니엘스(George Daniels)는 60년 이상 워치메이커로 헌신해 오며 업계에서 수차례 최고의 영예를 누려 온 시계 장인이다. 그의 이 위대한 개발은 대규모로 생산되는 손목시계 시장에 새로운 품질 기준을 제시하며 기계식 시계 제조 산업에 일대 혁명을 가져왔다.

위스키를 제조할 때 어느 한 부분도 사람이 관여하지 않는 부분이 없다. 질 좋은 재료를 선별하고 싹을 틔우는 몰팅 과정, 발효, 증류, 숙성 등 모든 과정에는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다. 특히 발렌타인 위스키 고유의 맛과 향, 품질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그 변하지 않는 가치를 대를 이어 전수하는 숭고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오직 단 한 명의 마스터 블렌더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발렌타인 역사상 마스터 블렌더는 발렌타인의 창시자이자 초대 마스터 블렌더였던 조지 발렌타인을 포함해 단 5명뿐이다. 이들은 시대를 초월한 발렌타인 위스키 고유의 스타일을 유지하는 블렌딩 비법을 전수 받은 유일한 사람이자 그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고 계승하는 '살아 있는 수호자'다. 그들은 방금 수확된 원료의 품질 테스트에서부터 길게는 수십 년에 걸친 위스키의 증류, 숙성, 블렌딩 과정까지를 헌신과 끈기로 지켜보아야 한다. 또 약 1,000가지의 향을 구별해 내는 천재적인 능력으로,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단지 향을 맡는 것만으로 각각의 원액을 구분해 낸다. 현(現) 마스터 블렌더 샌디 히슬롭(Sandy Hyslop) 역시 위스키에 대한 타고난 감각과 기량으로 일찍부터 두각을 드러내며 발렌타인의 모든 것을 총괄하고 결정하는 다섯 번째 마스터 블렌더로 임명됐다. 그의 전문적인 노하우와 다양한 경험은 최상의 원액의 완벽한 블렌딩으로 완성된 위스키의 정수, '발렌타인 40년'의 탄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발렌타인 40년은 마스터 블렌더 샌디 히슬롭과 세계적인 세공 장인 리차드 폭스(Richard Fox)의 합작품으로, 보틀 표면에 새겨진 발렌타인 문장과 스털링 은 장식은 모두 수작업으로 제작되며 매년 단 100병만 생산되는, 예술 작품과도 같은 진귀한 명작이다.



02

03

>>

01. 코-액시얼 탈진기가 장착된 대표 제품들
02. 코-액시얼 탈진기를 발명한 시계 장인, 조지 다니엘스
03. 코-액시얼 탈진기를 장착한 무브먼트, 오메가 코-액시얼 칼리버 8611

01

02

시계 미학의 완성과
아트 오브 블렌딩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발렌타인만의 시그니처 스타일과 쉽게 흉내 낼 수 없는 예술적인 블렌딩은 발렌타인이 쌓아 올린 위대한 유산 중 하나이자 많은 사람들에게 꾸준히 사랑받을 수 있는 비결이다. 발렌타인에 있어 '블렌딩'이란 단순히 위스키를 정확한 비율에 의해 섞는 것이 아니라, 스코틀랜드 4개 지역의 고유한 풍미와 개성이 각기 다른 40여 종의 최상급 몰트 및 그레인 위스키가 마스터 블렌더의 오감을 통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것을 뜻한다.

발렌타인에게만 붙는 수식어인 '아트 오브 블렌딩'은 위스키도 예술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근본적인 증거다. 발렌타인의 위스키 하나하나가 '아트 오브 블렌딩'을 실현하는 명작으로 일컬어지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완벽한 밸런스로 10년 전의 발렌타인과 오늘 마시는 발렌타인의 맛과 향을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변하지 않는 가치로 영원한 즐거움을 선사하는 발렌타인은 그만의 헤리티지를 간직해 오면서도, 시대에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매력으로 클래식하면서도 세련된 스타일이 반영된 브랜드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준다.

발렌타인이 블렌딩의 미학을 실현해 내는 위스키라면, 오메가는 '시계 미학의 완성자'다. 오메가는 1848년 창립 이래 워치메이킹의 예술 분야에 있어 괄목할 만한 기여를 해왔다. 1894년에 등장한 오메가 칼리버를 시작으로 1932년에 출시한 마린(Marine), 그로부터 50년 후 시계 산업에 혁명을 일으킨 코-액시얼(Co-Axial) 칼리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모델들로 예술적인 워치메이킹을 선보인 것.

'시계 브랜드'가 아닌 트렌드를 앞세운 '브랜드 시계'들의 끊임없는 도전 속에서도 오메가는 테크놀로지에 대한 노력을 잃지 않았다. 또 다수의 전문 영역에서 차별화된 위치를 점하는 한편, '혁신적인 시계 메이커'라는 브랜드 설립 당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 이러한 노력 하에 세계 130여 개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오메가는 정밀도와 우수한 성능, 그리고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섬세한 디자인을 겸비한 최고의 시계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장인의 섬세한 세공을 자랑하는 세계적인 시계 브랜드로서 '과학과 예술의 완벽한 조화'를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03

>>

01. 매년 단 100병만 생산되는 아트 오브 블렌딩의 정수, 발렌타인 40년
02. 완벽한 블렌딩의 미학을 실현하고 있는 발렌타인 대표 블렌드
03. 발렌타인의 5대 마스터 블렌더, 샌디 히슬롭

ART OF BLENDING

Lifestyle

02

Leave an Impression

겨울철 목마른 골퍼들의 갈증과 강추위,
그리고 골프에 대한 고정관념마저 날려 버리는 호쾌한 티샷이
눈앞에 펼쳐지는 드넓은 설경 위에서 시작된다.

The 1st. Experience of Snow Golf in Korea

국내 최초로 선보이는 이색 겨울 스포츠
발렌타인 스노골프

이미 유럽에서는 가족, 친구, 연인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겨울철 이색 액티비티로 각광 받고 있는 스노골프. 이제는 한국에서도 스노골프를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쌓인 눈 위에서 라운딩을 펼치는 독특하고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발렌타인은 국내 최초로 '발렌타인 스노골프' 대회를 열었다.

01

02

아름다운 설원을 배경으로 즐기는
신선하고 색다른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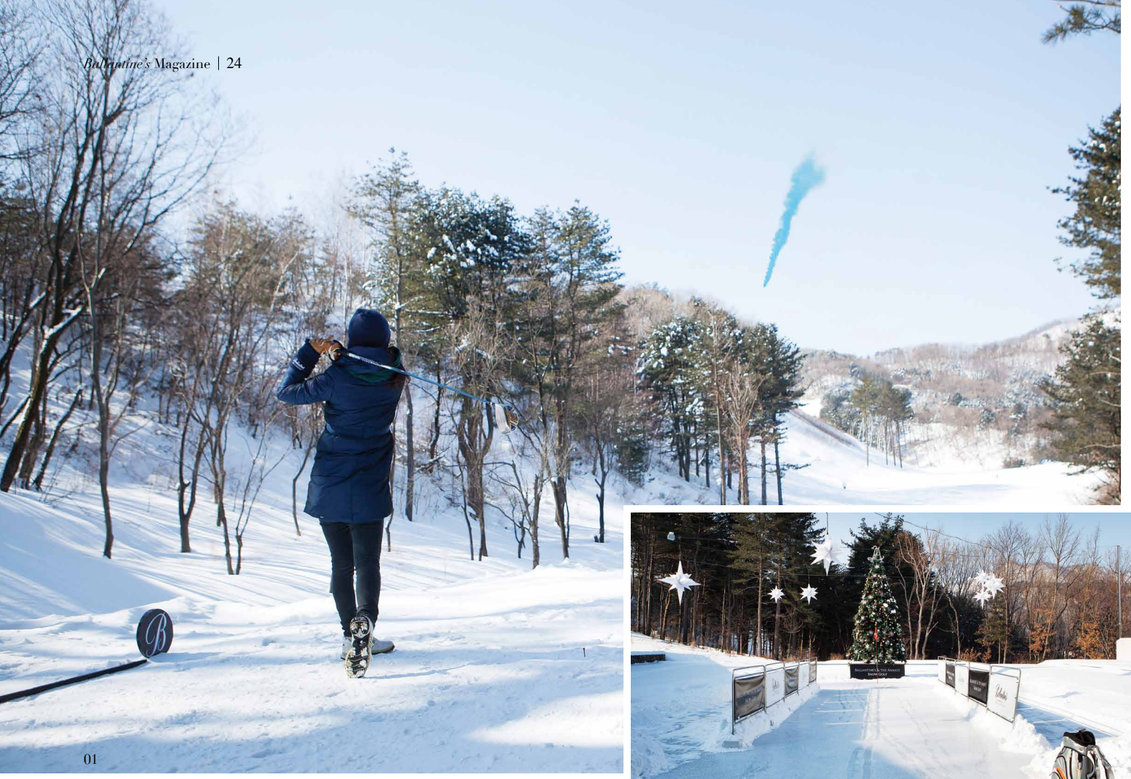
'눈이 쌓인 필드에서는 골프를 칠 수 없을까?'라는 의문에서부터 시작된 스노골프. 그 기원은 놀랍게도 17세기의 네덜란드 화가 '니르(Aert van der Neer)'의 그림에서 찾을 수 있다. 눈이 쌓인 강 위에 삼삼오오 모여 퍼팅을 하고 있는 모습을 작품 안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실제로 화가 니르는 색깔을 입힌 공을 홀에 집어 넣는 '클로벤'이라는 놀이를 즐겼다고 전해진다. 국내에서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는 스노골프의 역사가 무려 400여 년 가까이 되는 셈이다. 유럽에서는 골퍼들은 물론 골프를 즐기지 않는 일반인들도 이색 겨울 스포츠인 스노골프를 애호하고 있으며, 매년 겨울이면 유럽의 많은 지역에서 크고 작은 스노골프 대회가 열리기도 한다. 그 중 스위스 생모리츠에서 개최되는 '시바스 스노골프 챔피언십(Chivas Snow Golf Championship)'이 가장 유명하며, 특히 2007년 대회에서는 한국인 최초로 참가한 이재만 씨가 우승을 차지해 화제를 낳기도 했다.

지난 1월 5일, 아난티 클럽 서울에서는 발렌타인 스노골프의 첫 시작을 알리는 의미 있는 오픈식이 진행되었다. 뜻깊은 자리에 함께한 페르노리카 코리아 송현귀 이사, KASCO 이재규 회장, 아난티 클럽 서울 권영일 이사, 2007년 스위스 시바스 스노골프 챔피언 이재만 프로가 스노골프의 시작을 기념하는 시타를 직접 선보였다. 시타와 동시에 연기를 내뿜으며 멀리 뻗어나가는 컬러볼은 참석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사전에 당일 라운딩을 예약한 참가자들도 색다른 이색 스포츠 스노골프를 처음으로 즐기는 영광을 얻었으며,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날 많은 참석자들이 자리를 빛내주었다.

발렌타인 스노골프는 일반 정규 잔디 골프장보다 30% 정도 짧지만 단단하게 다지고 얼린 눈으로 페어웨이와 홀을 만들어 총 5홀 규모로 진행되며, No 카트, No 캐디 방식인 것이 특징이다. 각 홀을 걸어서 이동하는 동안 멋지게 펼쳐지는 설원을 바라볼 수 있으며, 매 홀마다 클럽과 컬러 골프볼이 비치되어 별도의 장비 없이 방한복과 방한화만 준비하면 간편하게 스노골프를 경험할 수 있다.

>>

01. 새하얀 설경을 바라보며 티샷을 날릴 수 있다
02. 스노골프의 기원을 찾을 수 있는 네덜란드 화가 니르의 그림



01

02

홀인원! 처음 느껴 보는

즐거움으로 가득한 라운딩의 묘미

'발렌타인 스노골프'는 눈 위에서 즐기는 특별한 라운딩일 뿐만 아니라 경기 내내 풍성하고 다채로운 요소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한 게임당 약 2시간 반 정도가 소요되고 총 5홀로 구성된 코스 중 2번홀은 '발렌타인 홀'로 불린다. 발렌타인은 그곳의 그린을 깔때기 모양으로 조성해 홀인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구성했다. 그에 더해 홀인원에 성공하는 모든 골퍼에게는 발렌타인 17이 상품으로 주어졌다.

아난티 클럽 서울은 또 스노골프 기간 동안 클럽 하우스 내 야외 수영장을 아이스 퍼팅장으로 꾸미고 '17 yard 아이스 퍼팅 대회'를 개최했다. 홀컵에서 약 17야드(15m) 떨어진 지점에서 한번에 퍼팅을 성공하면 역시 발렌타인 17이 제공된다. 오픈식 당일에도 홀인원과 아이스 퍼팅을 성공한 골퍼가 각각 탄생하여 발렌타인 위스키를 수여 받는 영광을 누렸다. 잠깐 쉬어가는 그늘집에서는 스노골프와 잘 어울리는 윈터 칵테일, '발렌타인 17 핫초코 & 핫토디'를 처음으로 선보이며 고객들에게 신선한 경험을 제공했다.

한 달여 간의 스노골프 여정이 끝나는 마지막 날에는 뜻깊은 마무리를 짓는 '발렌타인 스노골프 챔피언십'이 개최되었으며, 국내 최초의 스노골프 챔피언십 우승자에게는 발렌타인의 열정과 인내가 빚어낸 최고의 결실인 '발렌타인 40'이 수여됐다. 늘 새롭고 혁신적인 시도로 다양한 경험을 선사하는 발렌타인은 국내 최초로 개최된 '발렌타인 스노골프'를 통해 골프와 발렌타인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겨울에도 색다른 라운딩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

01. 시타 행사 시에는 연기가 나는 컬러볼을 사용하여 보는 재미를 더했다
02. 170야드(15m) 거리에서 아이스 퍼팅 성공 시 발렌타인 17년이 제공되었다

NICE SHOT!

2번홀(발렌타인 홀) 홀인원 성공 고객

고성현

"스노골프에서의 홀인원 성공으로 새해에는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 사실 눈이 쌓여 있는 그라운드의 특성상 홀인원인 줄 바로 알지는 못했는데, 얼떨떨한 기분입니다. 필드에서의 홀인원은 2003년도에 처음 경험했는데, 스노골프에서도 홀인원을 경험하게 되다니, 굉장히 기쁩니다. 이번 대회는 설경을 바라보면서 라운딩하는 재미가 있었고, 중간중간 동료들과 담소를 나누기도 좋았습니다. 경품으로 받은 발렌타인 17은 함께한 동료들과 즐길 예정입니다."

Mini Interview

—

발렌타인 스노골프 시타자 3인이 말하는

스노골프의 특별한 매력

2007년 스위스 시바스 스노골프 챔피언

이재만 프로

스노골프의 가장 큰 매력은. 눈이 쌓여 있는 골프장에서 즐기는 스노골프는 또 하나의 재미있고 색다른 액티비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부담감을 버리고 약간의 적응력만 가진다면 충분히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2007년 한국인 최초로 스노골프 챔피언이 되었는데. 우승 당시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어요. 동계 올림픽이 개최되고, 많은 스키장을 보유하고 있는 스위스 생모리츠에는 스포츠가 대중화를 넘어서 생활 속의 패턴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겨울 스포츠를 즐기는 분위기였던 만큼 그 안에서 부담감 없이 스노골프를 즐겼던 것이 우승의 견인차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스노골프의 경험자로서 주의 사항이 있다면. 우리나라 골프장의 랜딩 존은 협곡이 많기 때문에 티샷을 무조건 세게만 치려고 하면 눈 때문에 미끄러지거나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조심하고 라운딩에 임하신다면 훌륭한 스노골퍼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발렌타인과 골프는 많은 연관을 가지고 있는데. 네. 물론 저도 발렌타인 챔피언십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유럽 선수들의 플레이를 직접 볼 수 있는 권위 있는 국제 대회이기도 하고, 브랜드 네임에서도 높은 퀄리티가 느껴지니까요. 참석할 수 있는 시드가 있다면 누구나 참가해 보고 싶은 투어죠.

KASCO

이재규 회장

스노골프 첫 경험, 그 느낌은. 국내 최초로 진행된 스노골프의 시타자로 나서게 되어 영광이었고, 동시에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컬러볼이 연기가 나면서 하얀 눈 위로 뻗어 나가는 걸 보며 왠지 모를 감동이 느껴졌습니다. 카스코에서도 '발렌타인 스노골프'를 위해 각 홀에 비치된 드라이버와 우드, 컬러볼, 골프 백 등 다양한 용품을 협찬하고 있습니다. 설원에서 경험하는 색다른 겨울 스포츠, 스노골프를 보다 재미있고 유익하게 즐겨 보시길 바랍니다.

필드에서의 라운딩과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었는지. 스노골프는 우선 복장부터가 다르네요. 눈 위에서 즐기다 보니 평소 라운딩 웨어와 달리 방한복과 방한화를 준비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눈을 밟으며 게임을 즐긴다는 것이 굉장히 이색적이면서도 낭만적이었습니다.

아난티 클럽 서울

권영일 이사

스노골프 첫 경험, 그 느낌은. 눈 위에서 치는 골프, 스노골프의 시타를 통해 이 스포츠의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보통 겨울에는 많은 골퍼들이 동남아 지역으로 여행을 떠나곤 하는데, 한국에서도 겨울 골프를 즐길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한 좋은 기회였습니다.

스노골프의 경험자로서 주의 사항이 있다면. 눈 위에서 샷을 쳐야 하기 때문에 티샷할 때 스탠스가 미끄러울 수 있습니다. 눈 위를 걷기 위해 가급적이면 방수 기능이 있는 등산화(방한화)를 신는 것이 좋습니다.

일상에서 벗어나 색다른 즐거움을 만끽하다

기자들이 직접 체험한 스노골프

지난 1월 31일과 2월 2일, 양일에 걸쳐 주요 매거진과 일간지 기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스노골프 체험 행사가 아난티 클럽 서울에서 진행됐다. 평소 골프를 즐겨왔던 기자들은 물론 이번 기회를 통해 골프를 처음 경험하게 된 기자들 모두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즐거운 라운딩을 마쳤다.

연이은 한파로 두텁게 옷을 차려 입은 기자들이 정해진 시간에 맞춰 속속 도착했다. '과연 눈 위에서 골프를 칠 수 있을까' 하는 고민 반, 설렘 반의 표정으로 모두들 스노골프 체험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대기하는 동안 긴장된 몸을 이완하기 위해 따뜻한 '발렌타인 17 핫초코' 한 잔을 마시고,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겨우내 움츠러든 몸을 풀어 주었다. 남성 기자들은 물론 여성 기자들도 상당수 참여한 이번 체험 행사는 '발렌타인 스노골프'의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실시됐다. 경기는 4인 1조로 구성되어 2시간 반 동안 진행됐다. 평소 취미로 골프를 즐기는 기자들은 색다른 경험을 앞두고 기분 좋게 상기된 표정이었고, 드라이버를 처음 잡는 초보들은 긴장이 되는지 연신 주위의 선배 기자들에게 질문을 한다. "처음인데, 5홀을 모두 완주할 수 있을까요?" "이래서야 골프볼이나 제대로 맞출 수 있을까요?" 걱정스러운 표정의 기자들을 위해 현장에서 잠깐의 시간 동안 올바른 자세와 드라이버 그립을 잡는 요령에 대한 프로 골퍼의 시연이 이어진 뒤에서야 본격적인 라운딩이 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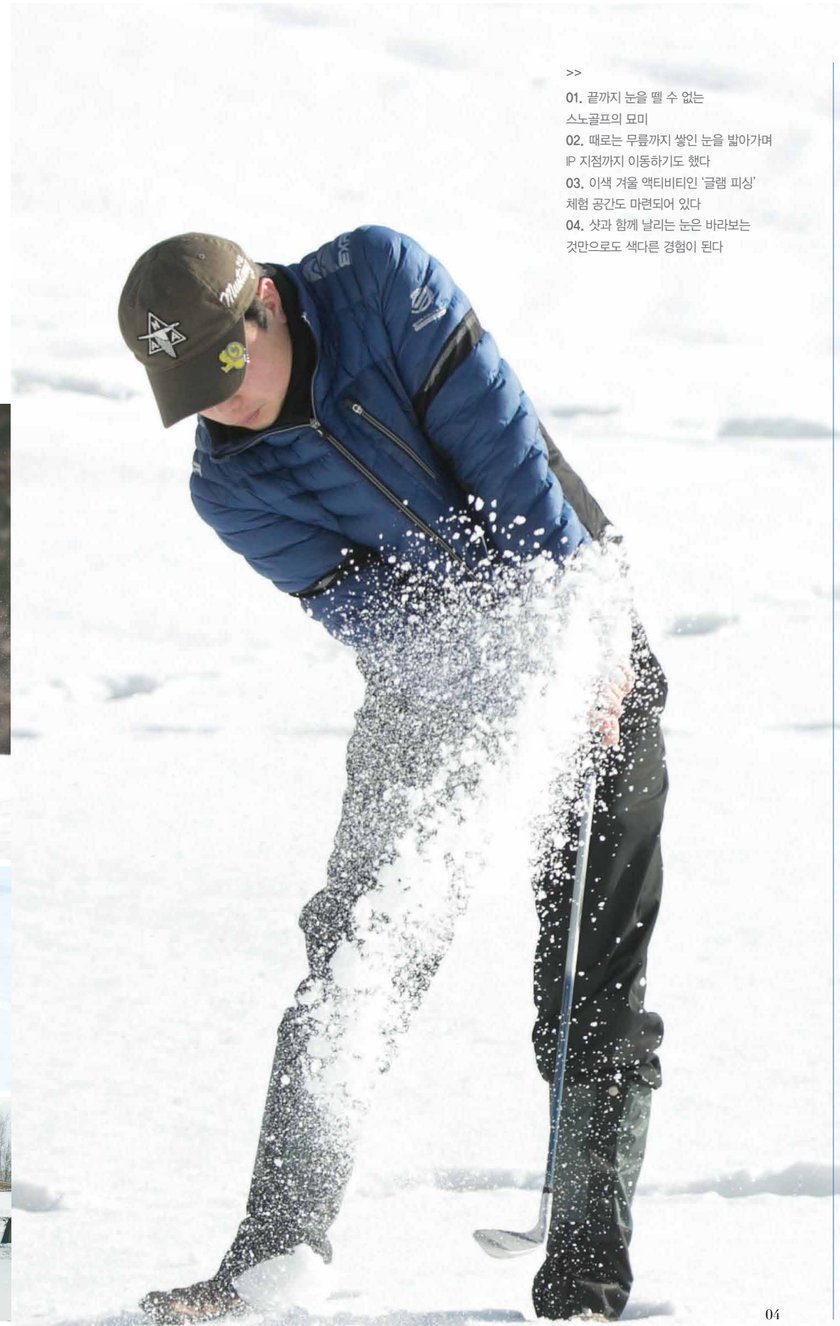
조별 티오프 간격은 15분으로 여유로웠다. 일반 골프 라운딩과 달리 각 홀의 티 그라운드와 IP 지점마다 장비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개인 장비를 별도로 지참할 필요가 없고, 가벼운 몸으로 경기에 임하기만 하면 된다. 카트를 타지 않고 홀과 홀 사이를 걷다 보니 자연스럽게 스노골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거나 눈 앞에 펼쳐지는 아름다운 설원을 감상할 수 있었다. 3번홀과 4번홀 사이에 위치한 그늘집에서는 발렌타인 위스키 한 샷과 함께 따뜻한 어묵이 제공되어 잠시 동안 몸을 녹일 수 있었다. 경기 중 아슬아슬하게 공이 비켜나가거나 벙커 지점과 외곽으로 볼이 날아가도 승부에 관계없이 모두가 자유롭게 게임을 즐기는 분위기였다. 또 연습 퍼팅을 여러 번 해보면서 현장의 운영 요원에게도 도움을 얻어, 자세를 점차 교정해 나가기도 했다. 특히 눈 속에 파묻힌 색색의 컬러볼을 직접 찾아 나서는 일은 꽤나 재미있는 경험 중의 하나였다.

처음의 우려와 달리 체험에 참가한 모든 이들은 5홀의 경기를 여유롭게 완주하면서 스노골프 체험을 마쳤다. 드라이버를 처음 잡아 보았던 초보들도 마지막 5홀을 앞두고는 한층 나아진 자세를 선보이며, 못내 아쉬운 마음을 비추기도 했다. 이후 이어진 식사 시간에는 미니 테이스팅 클래스가 진행되는 것과 함께 발렌타인과 골프의 특별한 만남으로 이어지고 있는 브랜드 고유의 헤리티지를 알아가는 시간도 마련되었다. 반나절을 함께한 기자들은 서로 자유롭게 발렌타인 위스키를 즐기면서 소중한 추억이 될 오늘의 경험에 대한 소감을 서로 공유하며 뜻깊은 하루를 마무리했다.

01

02

03



04

>>
01. 끝까지 눈을 뗄 수 없는 스노골프의 묘미
02. 때로는 무릎까지 쌓인 눈을 밟아가며 IP 지점까지 이동하기도 했다
03. 이색 겨울 액티비티인 '글램 피싱' 체험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04. 샷과 함께 날리는 눈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색다른 경험이 된다

주요 매거진 에디터가 전하는
스노골프 체험 소감

GQ
손기은 기자

"아주 오랜만에 꾸준히 하고 싶은 겨울 스포츠를 만났습니다"

평소 스키나 스노보드 등 유명한 겨울 스포츠도 즐기지 않던 저였는데, 스노골프를 경험하고서는 '골프에 진짜 입문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빠져버렸네요. 볼이 맞는 경쾌한 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해요. 추운 날씨에도 전혀 고생스럽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 겨울 스포츠, 눈이 소복하게 쌓여 있는 풍경을 바라보며 우아하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저는 1번홀에서 바라본 뷰가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Neighbor
윤은정 기자

"국내 최초의 스노골프, 그 특별한 기회를 얻게 되어 영광입니다"

중간에 그만둬야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을 했었는데, 오히려 다시 이곳을 찾고 싶은 마음이네요. 온몸이 움츠러드는 겨울, 큰 테크닉을 요하지 않으면서도 지인들과 즐겁게 즐기기에 더없이 좋은 스포츠가 아닐까 싶습니다. 컬러볼이 새하얀 눈밭을 향해 날아가는 모습도 좋았지만, 마치 보물찾기를 하는 것처럼 눈 속에 파묻힌 볼을 찾아 나서는 재미가 가장 컸습니다. 참가를 망설이던 친한 기자들도 함께 동행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Noblian
안상호 기자

"화이트 필드에서 즐기는 이색적인 경험,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네요"

평소 익숙하던 녹색의 필드가 아닌 화이트 필드에서 골프를 즐긴다는 생각에 사실 마음이 설렜습니다. 스윙을 하면서 함께 날리는 눈, 발렌타인 특유의 향이 더해진 발렌타인 핫초코, 깔때기 홀에서의 퍼팅 등 스노골프를 즐기는 동안 아기자기한 재미 요소를 많이 느꼈습니다. 필드에서와는 달리 뜻대로 볼 컨트롤이 되지 않아 조금 속상하긴 했지만, 마지막 5번홀에서 칩인에 성공해 그나마 위안이 되었네요.

THE 1ST. BALLANTINE'S SNOW GOLF CHAMPIONSHIP

눈 위에서 펼치는 감동의 설(雪)전, 그 첫 번째 대회 발렌타인 스노골프 챔피언십

한 달간 치러졌던 '발렌타인 스노골프'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발렌타인 스노골프 챔피언십'이 지난 2월 7일 성황리에 개최됐다. 국내 최초로 진행된 이번 대회를 시샘이라도 하듯 경기 당일 혹한의 추위가 몰려 왔지만, 오히려 빠짐없이 참석한 참가 선수들의 열기로 훈훈하고 인상적인 플레이가 곳곳에서 펼쳐졌다.

01

02

>>
01. 대회 참가자 전원에게 발렌타인 로고가 새겨진 핸드 워머가 제공되었다
02. 발렌타인 17 핫초코를 마시며 언 몸을 녹이는 참가자

01

02

03

>>
01. 페르노리카 코리아 방승주 부사장도 결승전에 참가해 경쟁을 펼쳤다
02. 카트 없이 홀과 홀 사이를 걷는 것 또한 스노골프의 매력이다
03. 추운 날씨에도 5홀의 경기를 완주한 페르노리카 코리아 송현귀 이사
04. 페르노리카 코리아 장 마누엘 스프리에 대표이사도 호쾌한 샷을 선보였다

따스하고 세심한 배려에

강추위를 잊은 티샷을 날리다

발렌타인 스노골프 챔피언십 대회 당일. 대회를 앞두고 며칠간 폭설이 내리면서 경기가 시작될 아난티 클럽 서울의 그라운드는 새하얗고 폭신하게 다져져 있었다. 스노골프를 위한 최적의 환경이 조성되었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에게는 가혹한 날씨였다. 영하 15도, 가만히 서 있기조차 힘든 추위였지만, 예상과 달리 경기를 즐기는 선수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끊이질 않았다. 아마도 익숙한 녹색 필드가 아닌 하얀 눈이 쌓인 코스에서 펼쳐진 발렌타인 스노골프 챔피언십에 대한 기대, 설렘과 긴장감이 그 이유가 되진 않았을까.

발렌타인은 참가자들을 위해 미리 준비한 웰컴 기프트와 웰컴 카드를 선물했다. 발렌타인 로고가 새겨진 비니, 팔 토시, 핫팩 등의 방한용품으로 채워진 발렌타인의 작은 선물은 약 2시간 30분간 진행된 라운딩 시간 동안 선수들에게 따스한 온기를 전했다. 또 경기 시작 전 모두에게 제공된 '발렌타인 17 핫초코'는 발렌타인만의 향과 맛이 담긴 윈터 칵테일로, 강추위에 맞서 승부를 펼칠 선수들의 기운을 북돋아 주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시합에 앞서 진행 요원은 경기 방식에 대한 간단한 브리핑과 함께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임을 재차 강조했다. 카트 없이 홀과 홀 사이를 걷게 되는 경기의 특성상 꽁꽁 얼어버린 눈으로 인해 생길 지 모르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고자 주의 사항을 당부한 것. 진행 요원들은 경기 중에도 내내 참가자들이 안전하게 경기를 마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분주히 움직였고 그 속에 세심한 배려가 돋보였다.

04

남녀 혼성 조 편성으로

더욱 흥미진진한 진검 승부를 연출하다

예선과 결선으로 나뉘어 진행된 이번 대회는 일반 골프 대회와 달리 남녀의 구분을 따로 두지 않는 것이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로, 그만큼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없는 경기였다. 평소 그라운드에서 실력을 뽐내던 참가자들도 눈이 쌓인 코스의 특성상 제 실력을 100% 발휘하기 힘들어 했다. 카트와 캐디 없이 경기가 진행되기 때문에 개인 장비가 아닌 각 홀에 비치된 클럽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 또한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4인 1조로 남녀 구별 없이 편성된 10개의 조가 샷건 방식으로 스타트하여 5홀의 경기를 치렀으며, 경기 후에는 스코어카드 제출과 동시에 최종 성적이 집계됐다.

우승자에게는 발렌타인의 창립자 '조지 발렌타인'의 정신이 반영된 최고연산의 고품격 위스키 '발렌타인 40'이 수여되는 만큼, 당초 참가자들 간의 치열한 순위 경쟁을 예상했지만, 같은 조에 편성된 각 조원들 간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맴도는 대신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아름다운 대자연 속에서 펼쳐지는 대회이자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색다른 스포츠 경기였기에 서로의 스윙을 지켜보고 응원하며 함께 즐기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연출되었던 것. 이 뜻깊은 자리에는 페르노리카 장 마누엘 스프리에 대표이사를 비롯하여 여러 VIP들도 경기에 직접 참가하여 순간의 즐거움을 함께 누렸다.

>>
발렌타인 위스키 테이스팅 등
스노골프 챔피언십 참가자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되었다

01

라운딩 그 이상의 감동,

그라운드 안팎에서 누리는 긴 여운

발렌타인 스노골프 챔피언십은 대회 중간중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흥미 요소를 갖춰 경기 내내 더욱 큰 즐거움을 선수들에게 선사했다. 포토월에서의 즉석 사진 이벤트는 물론 아이스 퍼팅 존에서 누리는 아슬아슬한 퍼팅의 묘미는 경기 시작 전 긴장을 풀어주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예상치 못한 환희의 순간은 경기 중에도 계속됐다. 깔때기처럼 다져 놓은 2번홀을 발렌타인 홀로 이름 짓고 홀인원에 성공한 참가자에게 발렌타인 17을 제공했으며, 지정된 홀에서 페어웨이 안착 후 가장 멀리 비거리를 날린 참가자에게는 '롱기스트' 타이틀과 경품을 수여했다. 경기의 승패를 떠나 라운딩 그 자체를 즐기면서 해당 코스의 미션을 성공하는 기쁨은 발렌타인 스노골프 챔피언십이 주는 또 하나의 짜릿한 감동이었다.

시합 전 따뜻하게 참가자들의 몸을 데워준 '발렌타인 17 핫초코', 시합 중간 그늘집에서 잠시 쉬어가는 동안 마시는 발렌타인 한 샷, 경기 후 여운을 즐기며 제대로 음미하는 발렌타인 위스키 또한 라운딩의 여운을 더욱 향기롭게 물들였다.

>>
01. 아난티 클럽 서울의 야외 수영장이 아이스 퍼팅장으로 꾸며졌다
02. 아이스 퍼팅에 성공한 참가자들에게 제공된 발렌타인 17년
03. 스노골프에서 빠질 수 없는 컬러볼

02

03

>>
01. 스노골프 챔피언십 우승자에게 수여된 발렌타인 40년
02. 가장 좋은 호흡을 보여준 팀에게 수여되는 퍼펙트 밸런스상
03. 240 yard의 비거리를 날려 롱기스트상을 수여받은 김종석 씨
04.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마무리된 시상식

01

02

03

발렌타인 40을 선사 받은
단 한 명의 영예로운 주인공

시상식이 시작된 직후부터 현장의 최대 관심사는 오늘의 우승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국내 최초의 스노골프 챔피언'이라는 영광스런 타이틀을 얻는 것과 동시에 매년 단 100병만이 생산되는 진귀한 블렌드, '발렌타인 40'을 수여받는 단 한 명의 주인공 자리를 두고, 내심 자신이기를 기대하는 참가자도 눈에 띄었다. 하지만 국내에서 처음으로 스노골프라는 장르가 시도된 만큼 그 우승자를 예측하기란 쉽지 않았다. 시상식 말미에 웅장한 배경 음악이 깔리고 마침내 여성 참가자인 곽재원 씨가 우승자로 호명되자 현장의 모든 참석자들이 큰 박수와 함께 진심으로 축하를 보냈다. 5홀에서 1언더파의 좋은 성적을 거두며 우승 타이틀을 거머쥔 그녀는 우승을 전혀 예감하지 못한 듯 "한파에 바람까지 심했던 악조건에도 오히려 평소 기록하던 스코어보다 잘 나왔다"며 감격에 겨운 모습으로 우승 소감을 밝혔다. 우승자 곽재원 씨를 비롯해 3위를 기록한 김진문 씨 등 여성 골퍼들의 약진이 두드러졌던 2013 발렌타인 스노골프 챔피언십. 처음 치러진 대회에도 불구하고 깔끔한 진행과 운영, 성공적인 라운딩, 다양한 고객 참여 이벤트에 대한 열띤 호응 등으로 승패에 관계없이 대회 그 자체를 즐기면서 모두가 돋보였던 시간이었다.

04

성공적인 첫 대회를 마무리하며
희망의 축배를 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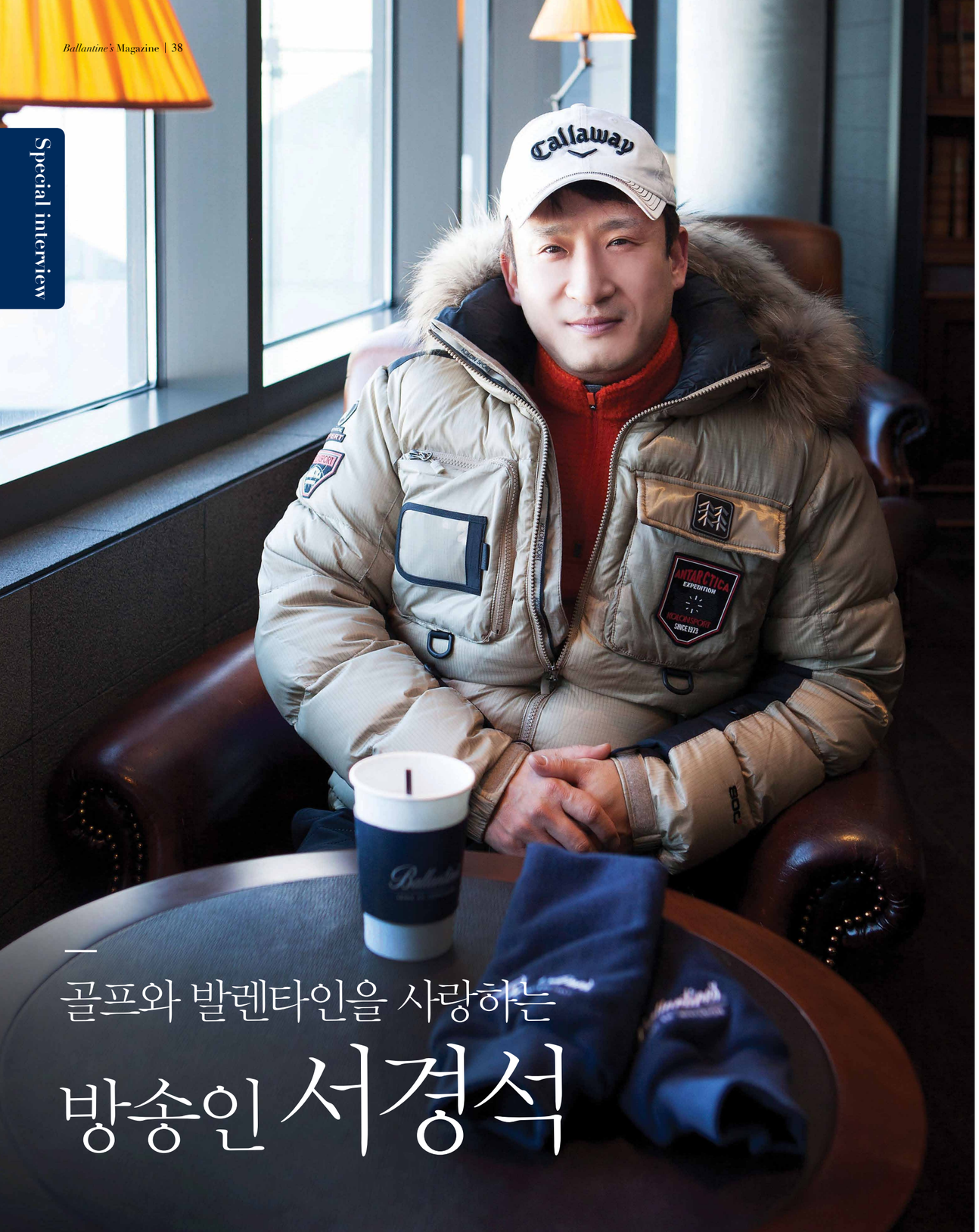
감성적인 재즈 연주와 함께 고아라 재즈 보컬리스트의 멋진 멜로디가 만찬장 내부에 잔잔히 깔리는 가운데, 대회 시상식이 시작되었다. 본격적인 시상에 앞서 페르노리카 코리아 장 마누엘 스프리에 대표이사가 무대에 올라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여러분 모두 오늘 하루, 즐겁고 소중한 추억을 만드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평소 등산을 좋아하는데 오늘 많이 걸으면서 골프를 칠 수 있어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승전 경기에 직접 참가했던 소감을 간단히 밝힌 장 마누엘 스프리에 대표이사는 또 "발렌타인은 2008년 이래 한국 유일의 유러피언 투어인 발렌타인 챔피언십을 개최하고 있으며, 늘 여러분께 진정한 골프의 경험을 제공하고자 노력해 왔다"며 발렌타인과 골프의 만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끝으로 "여러분은 오늘 스노골프에 있어 선구자이자 실력자가 되신 것"이라며 다 함께 건배할 것을 제의했다.

시상 부문은 우승을 비롯해 준우승과 3위, 그리고 이날 가장 멋진 패션을 보여준 베스트 드레서상, 팀원 편차가 가장 적은 팀에게 수여되는 발렌타인 퍼펙트 밸런스상, 가장 많은 비거리를 날린 롱기스트상, 베스트 포토제닉상으로 크게 나뉘었다. 아쉽게 수상을 하지 못한 참석자들에게도 발렌타인 퀴즈, 럭키 드로우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경품이 제공돼 현장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Ballantine's

LEAVE AN IMPRESSION

Special interview



골프와 발렌타인을 사랑하는

방송인 서경석

>>

01. 예선전에 참가해 1번홀에서 티샷을 날리는 모습
02. 경기 종료 후 스노골프에 대한 소감을 많은 이들과 공유했다

발렌타인 스노골프 챔피언십의 예선전이 펼쳐진 현장에서 방송인 서경석을 만났다. 평소에도 골프를 즐기는 매니아로 알려져 있는 그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 대회에 참석, 어느새 스노골프의 매력에 흠뻑 빠져들기 시작했다.

방한 복장을 갖추고 강추위 속에서 스노골프의 진면목을 직접 체감한 그를 통해 발렌타인과 골프에 대한 생각과 짧은 이야기를 직접 들었다.

스노골프 첫 경험, 소감이 어떠셨는지.

사실 스노골프에 대해 듣고 나서 상당히 궁금했어요. 이제 골프를 치기 전 설렘을 갖는 단계는 이미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어제는 오랜만에 설렘이 느껴지더라고요. 실제로 경험을 해보니 그 궁금증이 말끔히 해결되었네요. 다들 움츠러들고, 문도 걸어 잠그고, 바깥 활동을 자제하게 되는 시기에 대자연과 호흡할 수 있다는 것이 스노골프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또 눈길을 걷다 보니 물리적인 운동의 효과까지 얻을 수가 있구요.

오늘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었다면?

스노골프의 백미는 깔때기 홀에서 눈 위를 타고 흐르는 홀인원의 맛을 경험해 보거나 어프로치로 버디 맛을 보는 것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가 소망이었는데 홀인원은 실패했고, 어프로치는 퍼팅 그린에는 무사히 안착했지만, 눈이 많이 쌓인 탓에 굴러 내려가지가 않아서 아쉽게 실패했네요. 또 필드에서 러프에 해당되는 곳에 공이 떨어지면 찾기가 힘들어서 진행 요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네요.

필드에서의 골프와 스노골프의 차이점이 있다면?

필드에서 오만했던 사람들을 겸손하게 만드는 스포츠가 바로 스노골프인 것 같습니다. 평소 거리에 자신이 있는 사람보다는 정교한 샷을 구사하는 사람들이 유리한 골프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구요. 또 스노골프는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겠더라고요. 물론 저체력이신 분이라면 체력 증진에 도움이 되기도 하겠구요.

평소 발렌타인을 즐기시는지?

위스키를 자주 즐기는 편은 아니지만, 위스키를 마시게 되면 발렌타인 17을 즐겨 찾습니다. 참 오늘 '발렌타인 17 핫초코'를 처음 맛보게 되었는데, 발렌타인 17 특유의 맛과 향이 담겨 있으면서도 오묘한 조합이 매력적이었어요. 추운 날씨에 더해지니 더욱 감미롭게 다가오네요. 발렌타인과 핫초코의 조화로움, 그 신선한 발상 자체가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Discover the Legends

미리 경험하는 감동과 환희의 골프 토너먼트
2013 발렌타인 챔피언십

발렌타인과 골프를 사랑하는 한국인들을 위해 발렌타인은 2008년부터 매년 국내에서 발렌타인 챔피언십을 개최하고 있다. 올해로 여섯 번째 대회를 맞이하는 2013 발렌타인 챔피언십은 탄탄하게 다져 온 대회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한 라인업, 풍성한 이벤트와 함께 국내 골프 팬들에게 더욱 강렬하고 깊은 인상을 남길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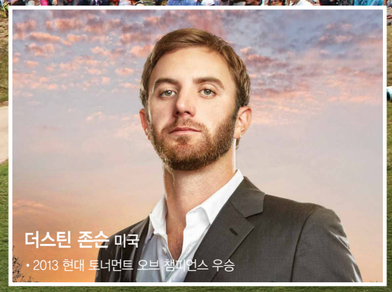
2013 발렌타인 챔피언십

기간 : 4.25 ~ 4.28
장소 : 이천 블랙스톤 골프 클럽

www.ballantineschampionship.com

양용은 대한민국
- 아시아 선수 중 최초로 메이저 대회 우승
- 2009년 PGA 챔피언십 우승

루이스 우스투이젠 남아공
- 2013년 혼보 골프 챔피언스 우승
- 2010년 브리티시오픈 우승


더스틴 존슨 미국
- 2013 현대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 우승

국내 유일의 유러피언 투어
그 6번째 대회

스코틀랜드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발렌타인과 골프. 이 둘은 명작과 명경기를 위한 헌신과 열정, 예술에 가까운 완벽한 솜씨를 요한다는 점에서 많은 가치를 공유한다. 1960년 영국의 명문 골프 클럽 웬트워스에서 열린 발렌타인 토너먼트 대회를 시작으로 발렌타인과 골프는 긴밀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이 전통적 가치를 이어받아 발렌타인은 2008년부터 한국에서 발렌타인 챔피언십을 개최하며 전 세계 명성 있는 골프 대회의 또 하나의 기준을 새로이 세우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의 골프 토너먼트', '국내 유일의 유러피언 투어' 등 발렌타인 챔피언십을 언급할 때 빠질 수 없는 수식어와 220만 5천 유로(약 31억 원)에 달하는 총 상금만으로도 이 대회의 규모와 상징적인 가치를 가히 짐작할 수 있다. 나흘간의 대회 동안 한국을 찾을 정상급 스타 플레이어들은 경기 내내 열정이 묻어나는 화려한 플레이를 선보이며, 국내 팬들에게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또한 발렌타인 챔피언십은 한국의 젊은 골프 선수들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한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가진다. 이 대회를 통해 발렌타인은 국내 선수들에게 내로라하는 해외 선수들과 어깨를 견주며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한국 골프의 밝은 미래에도 공헌하고 있다.

국내 골프 팬들에게 봄은 매년 특별하게 다가온다. 매해 4월이면 발렌타인 챔피언십이 어김없이 개최될 뿐만 아니라 대회에 참가하는 쟁쟁한 해외 선수들의 라인업이 그 전부터 속속 발표되기 때문이다. 이번 2013년 발렌타인 챔피언십은 이전 대회와 같이 눈여겨볼 선수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다. 2010년 브리티시오픈 우승자인 루이스 우스투이젠과 2007년 마스터스 챔피언 재크 존슨, 올 시즌 현대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에서 우승컵을 들어 올린 더스틴 존슨을 비롯해 아시아 최초의 메이저 대회 우승자인 양용은, 2011년 한국프로골프(KPGA) 상금왕에 오른 김경태가 출전을 확정 지었다.

출전 선수 중 현재 세계 랭킹이 5위로 가장 높은 우스투이젠은 올해 1월에 개최된 볼보 골프 챔피언스에서 우승을 차지한 여세를 몰아 이번 발렌타인 챔피언십의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손꼽히고 있다. 우스투이젠은 발렌타인 챔피언십 첫 참가에 대한 소감을 "우선 한국을 처음 방문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발렌타인 챔피언십이라는 큰 대회에 참가하게 돼 기대가 많이 된다"고 밝혔다. 또한 2008년부터 한국을 대표하여 꾸준히 대회에 참가하고 있는 양용은은 "발렌타인 챔피언십은 항상 최고 대회의 면모를 보여줬고, 특히 선수들이 좋은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 왔다. 올해는 꼭 좋은 성적을 내어 보답하고 싶다"며 강한 우승의 의지를 피력했다.

2008년의 그래엄 맥도웰, 2009년의 통차이 자이디, 2010년의 마커스 프레이저, 2011년의 리 웨스트우드, 2012년의 베른트 비스베르거의 뒤를 이을 올해의 우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한국에서 처음 개최된 이후 벌써 여섯 번째로 열리는 대회인 만큼, 이번에야말로 최초의 한국인 우승자가 탄생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국내 팬들의 기대 또한 경기를 관전하는 또 하나의 재미가 되고 있다.

올해 발렌타인 챔피언십은 지난해와 같은 장소인 경기도 이천의 블랙스톤 골프 클럽에서 4월 25일부터 4월 28일까지 개최된다. 발렌타인은 대회에 앞서 순수 아마추어에게 발렌타인 챔피언십 참가 기회를 선사하는 '로드 투 더 발렌타인 챔피언십', 나흘간의 대장정을 위한 축제 '갈라 디너', 프로와 아마추어 선수들이 함께 실력을 겨루는 '프로암 대회', 우승자의 트로피를 미리 만나볼 수 있는 '트로피 투어' 등 다양하고 특별한 사전 이벤트를 마련하여 발렌타인 챔피언십의 감동을 미리 경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우승자 베른트 비스베르거와 발렌타인의 현 마스터 블렌더 샌디 히슬롭의 협업으로 탄생한 특별한 블렌드이자 올해의 우승자에게 헌사되는 '2013 발렌타인 챔피언십 블렌드'도 직접 만나볼 수 있다. 대회가 치러지는 나흘 동안 블랙스톤 골프 클럽 내에는 발렌타인 바가 마련된다. 이곳에서 발렌타인 샷과 발렌타인 칵테일을 즐길 수 있으며, 글로벌 브랜드 앰버서더가 직접 진행하는 멘토링 프로그램도 예정돼 있다.

Road to the Ballantine's Championship

꿈의 무대를 향한 아마추어 골퍼들의 도전

2013 로드 투 더 발렌타인 챔피언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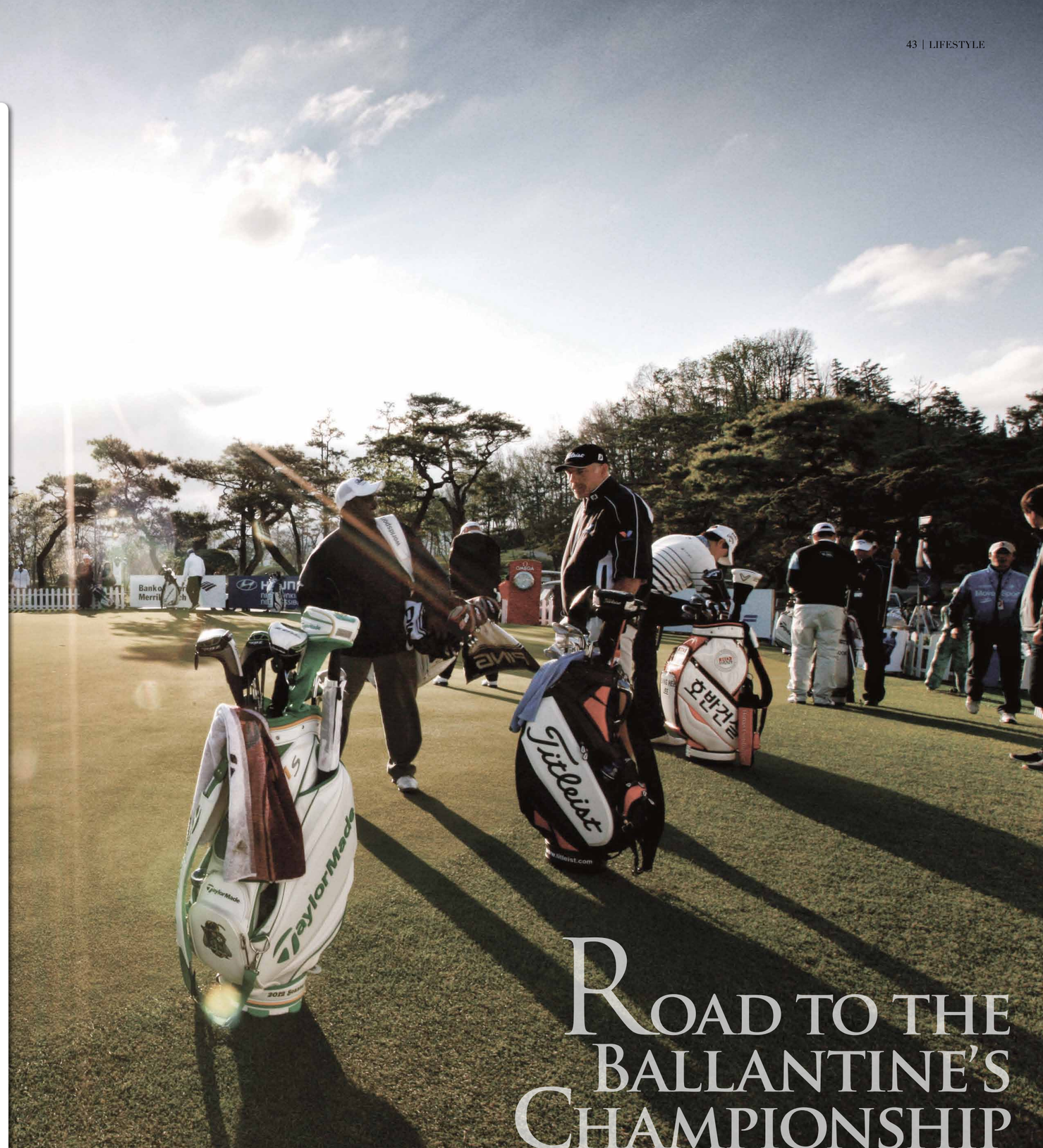
신인 골퍼 발굴과 국내 골프 발전을 위해 페르노리카 코리아가 개최하고 한국프로골프투어에서 주관하는 '2013 로드 투 더 발렌타인 챔피언십'이 예선과 결선으로 진행되어 성공리에 마무리됐다. 이로써 대회의 우승자이자 가슴 설레는 일생일대의 경험으로 평생 기억에 남을 꿈의 필드를 밟게 될 단 한 명의 주인공이 정해졌다.

2008년 이래 국내 유일의 유러피언 투어로 자리잡은 발렌타인 챔피언십은 국내 골프의 위상을 드높이는 데 기여했다. 매년 내로라하는 해외 유명 선수들은 한국을 찾아 국내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있으며, 실력 있는 선수들의 플레이를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로 많은 국내 골프 팬들이 갤러리로 참석하여 대회를 즐기고 있다. 경기를 관람하는 것 자체를 매우 소중한 경험으로 여길 이들이 실제로 같은 무대에서 선수들과 경쟁을 펼치게 된다면 그 감동이 얼마나 큰 여운으로 가슴 속에 자리잡을까. 발렌타인은 '로드 투 더 발렌타인 챔피언십'을 통해 아마추어 골퍼들을 위한 기회의 문을 열고, 단 한 명의 우승자에게 도전과 열망의 대상인 '발렌타인 챔피언십'에 참가할 수 있는 티켓을 부여한다.

지난 11월 12일부터 27일까지, 국내 3개 권역의 골프장인 힐드로사이 C.C, 진양밸리 C.C, 블루원상주 C.C에서는 '로드 투 더 발렌타인 챔피언십' 예선전이 열렸다. 지난 5년간은 전도유망한 신진급 프로들에게 참가 기회를 주었으나, 올해 대회부터는 국내 골프 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해 아마추어 골퍼들만 참가할 수 있도록 대회 참가 자격을 변경했다. 골프를 사랑하는 만 19세 이상의 남성으로, 프로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순수 아마추어 골퍼들만 참가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면서 그 장벽을 더욱 낮춘 것.

사전 접수를 통해 집계된 참가 선수들의 평균 나이는 42세로 이전 대회에 비해 다소 낮아졌다. 최연소 참가자인 송정현(19세)씨부터 최고령 참가자인 염상호(62세)씨까지, 연령은 물론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두루 지원자가 몰려 그 인기를 실감케 했다. 순수 아마추어 골퍼들을 비롯해 프로 지망생, 국가대표 상비군 등 많은 참가자들의 호응 속에 개최된 이번 대회는 그 숨겨진 실력이 드러나지 않은 아마추어 고수들이 쟁쟁한 플레이를 선보이며 초반부터 열띤 경쟁을 예고했다. 초겨울의 한파와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총 18홀의 경기에서 전체 평균 스코어 82타, 베스트 스코어 73타를 기록하는 등 예선전 결과를 통해서도 그 수준과 열기를 짐작할 수 있었다. 치열한 예선전을 거쳐 총 104명의 참가자 중 52명이 본선에 진출하며 꿈의 무대에 한 발 더 다가섰다. 지난 3월 25일과 26일, 양일간 본선에 진출한 52명을 대상으로 한 결선은 올해 발렌타인 챔피언십 본 대회가 열릴 경기도 이천 블랙스톤 골프 클럽에서 펼쳐졌다. 블랙스톤 골프 클럽은 그린 굴곡이 심하고 코스 전장이 길어 난코스로 손꼽힌다. 대회 당일에는 특히 추운 날씨와 함께 매서운 바람마저 몰아쳐 선수들을 초조하게 하기도 했다. 이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결승전을 통해 마침내 2013 발렌타인 챔피언십에 진출하게 된 행운의 주인공은 2011, 2012년 국가대표상비군으로 활동했던 최진규 선수다. 최진규 선수는 현재 경운대학교 사회체육학과에 재학 중인 유망주로 초등학교 4학년 때 골프에 입문한 이후, 시도대회 우승을 시작으로 국가대표상비군으로 활약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적을 보여 왔다.

우승을 확정 지은 후 최진규 선수는 "먼저 부모님과 발렌타인 챔피언십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준 발렌타인 측에 감사를 드린다"며 "저와 선의의 경쟁을 펼친 다른 참가 선수들의 몫까지 배로 열심히 하여, 후회 없는 경기를 펼치겠다. 최선을 다하여 경기에 임한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2013 로드 투 더 발렌타인 챔피언십의 우승자 최진규 선수에게는 발렌타인 챔피언십 출전권과 더불어 대회 참가 경비 전액을 페르노리카 코리아 측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ROAD TO THE BALLANTINE'S CHAMPIONSHIP

Column by Ballantine's Influencer

장타를 향한 골퍼들의 꿈 비거리 향상을 원하는 골퍼를 위하여

비거리가 경기 결과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비거리는 또한 골퍼들에게 경기 결과보다도
더 중요한 자존심 문제로까지 여겨지고 있다.

MFS 골프 대표이사 / 체육학 박사
_ **전재홍** (jjh@mfsgolf.com)

한 전문 조사기관이 지난해 전국의 골프장 및 골프 연습장에서 라운드 또는 연습을 마친 골퍼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우선 지난 1년 동안의 클럽 교체 여부를 살펴보니 조사자 중 61.3%가 퍼터를 교체하였으며 44.6%가 우드, 29.4%가 아이언을 교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우드를 교체한 골퍼의 절반에 가까운 47% 이상이 최근 1년 내에 드라이버를 교체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재미있는 결과는 전체 응답자의 무려 58%가 최근 2년 이내에 우드를 교체한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 교체 이유로는 헤드 디자인, 헤드 크기, 탄도, 가격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장타력 즉, 비거리가 20.1%로 교체 요인 1위이고 그 다음 17.1%가 방향성 관련 요인으로 클럽을 교체하며, 가격적인 이유는 불과 4.1% 남짓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다수의 골퍼들이 클럽을 선택할 때의 교체 기준을 좀 더 기능적으로 살펴보면 그 첫 번째가 비거리이며 두 번째가 방향성, 세 번째가 타구감과 타음, 네 번째가 심리적인 확신 또는 불안감을 해소해 주는 헤드의 디자인과 어드레스 정도다. 후차적인 기준으로는 그립, 클럽 길이, 가격 정도를 살펴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의 골퍼들이 무엇보다도 비거리에 대해 얼마나 많은 욕구와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비거리를 더 내기 위해서는 어떤 클럽을 사용하는 게 좋은 것일까? 같은 조사 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같이 병행했는데,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1위가 친구 또는 주변의 권유(25.2%), 2위가 직접 시타를 한 이후에 교체(22.8%), 3위가 골프샵 직원의 권유(18.6%)라고 응답했다. 그 밖에도 '프로들이 사용하는 클럽으로 변경'하거나 '광고 선전 문구를 보고', '헤드 재질을 고려하였다'는 등 다양한 응답이 나왔다.

하지만 여기서 조금만 더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자. 가령 A라는 회사에서 출시한 A-1이란 모델을 알리기 위해 '2013년 신제품 출시' '꿈의 비거리 실현' '20야드 비거리 보장' 등 갖가지 좋은 말로 포장하여 제품을 광고했다고 가정하자. 아마도 골프 전문 잡지를 본 골퍼라면 이러한 문구를 한 번쯤은 접해 보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매년 신제품이 출시될 때마다 20야드씩 비거리가 늘어나는 클럽이 출시된다면, 10년 전에 비거리 200야드를 치던 골퍼는 지금 400야드는 기본으로 쳐야 된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이 세상에 비거리를 더 잘 나오게 해주는 클럽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약 앞으로 무조건 비거리가 10야드씩 더 나가는 클럽이 개발된다면 백이면 백, 빌 게이츠에 버금가는 부자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골퍼 개개인의 스윙은 사람의 지문처럼 서로 상이하고 키, 체중, 나이, 구력 등도 다를뿐더러 헤드 스피드, 볼 스피드, 백 스핀량, 템포 등 모든 데이터에서 차이가 난다. 따라서 비거리를 더 내기를 진정으로 원하는 골퍼라면 개인의 신체적 특징과 스윙 습관 등을 꼼꼼히 점검하고 피팅 전문가의 정확한 분석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헤드 디자인과 샤프트 디자인, 로프트각, 클럽 길이, 강도 등을 결정한 뒤 클럽을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비거리보다는 방향성에 보다 많은 초점을 두어 클럽을 교체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비거리의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항상 유의하기 바란다.

참고로 세계에서 골프를 가장 잘 친다는 PGA 프로의 경우에도(헤드는 본인의 취향이나 소속된 회사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겠지만) 클럽 선택 시 샤프트의 선택과 강도 및 모델, 길이, 무게는 물론 골퍼의 헤드 접사 각도, 초기 발사각, 백 스핀량 및 볼의 속도, 볼의 낙하각까지 모두 고려하는 과학적인 측정 방법을 통해 안정된 방향성과 최적의 스핀량을 제공하고 높은 비거리를 얻을 수 있는 클럽을 선택하고 있다.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사업국장
_ **박호윤** (phy2006@kpgt.com)

Column for Golfers

국내 유일의 유러피언 투어 발렌타인 챔피언십의 계절이 돌아왔다

해마다 이맘때면 골프 팬들의 마음은 설렌다. 겨우내 잔뜩 움츠러들었던 골프에 대한 열정이 화창한 새 봄과 함께 한껏 펼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때맞춰 골프 팬들을 더욱 신명나게 할 한바탕의 '골프 축제'가 팡파르를 울린다. 다름 아닌 국내 유일의 유러피언 투어 '발렌타인 챔피언십'이다.

미PGA투어와 함께 세계 골프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유러피언 투어의 공식 대회인 발렌타인 챔피언십이 이 땅에 처음으로 선을 뵌 지도 어느덧 6년째다.

우리나라 여자 골프는 이미 명실상부 세계 최강이라 자부해도 될 만큼 성장했다. 여자 골프의 세계 최고봉이라 할 수 있는 미LPGA투어에서 올린 승수만도 100승을 훨씬 넘겼으며, 선각자라 할 수 있는 박세리 말고도 신지애, 최나연, 박인비 등이 세계 여자 골프계를 호령하고 있다. 반면 남자 골프는 최경주가 미PGA투어에서 무려 8승을 올렸고 양용은도 메이저 대회(PGA챔피언십) 우승 등 2승을 기록하며 세계 골프계에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는 데다 배상문, 김경태 등도 무시 못할 강호로 인정받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세계 골프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없지 않다.

그러한 가운데 지난 2008년 세계적 기업인 페르노리카 그룹이 우리나라에서 발렌타인 챔피언십을 창설하고, 지금껏 꾸준히 개최해 오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대한민국 남자 골프계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결정적 계기를 제공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오픈 등 특정 대회에서 1~2명의 세계 정상급 프로들을 초빙해 경기를 치른 적이 있긴 하나, 내로라하는 강호들이 대거 내한해 경기를 치르는 것은 현재까지도 발렌타인 챔피언십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이 대회를 통해 다수의 국내 선수들은 웬만해서는 접해 보기 힘든 유러피언 투어를 국내 코스에서 경험하게 됨으로써 큰 무대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2010년 김경태, 2011년 배상문이 일본투어 상금왕에 오르는 등의 전례 없던 성공도 발렌타인 챔피언십에서의 경험이 뒷받침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간 다섯 차례 열린 발렌타인 챔피언십을 통해 국내 팬들도 세계 최고 선수들의 수준 높은 샷을 눈앞에서 충분히 감상할 수 있었다. 어니 엘스, 아담 스콧, 대런 클라크, 파드리그 해링턴 등 메이저 챔피언들이 줄줄이 방한했고 당대 세계 랭킹 1위에 자리했던 리 웨스트우드도 다녀갔다. 초대 챔피언에 올랐던 그래엄 맥도웰은 이 대회 우승을 계기로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 2010년 US오픈 정상에 오르기도 했다. 올해 발렌타인 챔피언십 역시 메이저 챔피언들이 대거 방한, 팬들에게 또 다른 흥분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2007년 마스터스 챔피언 재크 존슨(미국)과 2010년 브리티시 오픈 우승자 루이스 우스투이젠(남아공)이 각각 처음으로 국내 팬들에게 선을 뵌다. 재크 존슨이 유러피언 투어에 출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또 올 1월 볼보 골프 챔피언스에서 우승, 현 세계 랭킹 5위에 올라 절정의 기량을 과시하고 있는 우스투이젠도 첫 출사표를 던졌다. 이 밖에 미PGA투어 시즌 개막전인 현대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에서 우승을 차지한 장타자 더스틴 존슨(미국)도 2년 만에 다시 한국을 찾아 특유의 가공할 펀치력을 자랑하게 됐다.

이에 맞서는 한국 선수로는 아시아 유일의 메이저 챔프 양용은이 선봉에 나서며, 최근 전열을 재정비한 김경태, 그리고 지난해 국내 대상 포인트 상위 35명도 호시탐탐 유러피언 투어 공식 타이틀에 군침을 흘리고 있다.

올해는 어떤 선수가 새로운 스타로 탄생할 것인가. 또 사상 첫 한국인 챔프의 꿈은 이뤄질 수 있을 것인가. 4월 25일 이천의 블랙스톤 골프 클럽에서 시작되는 '발렌타인 챔피언십 2013'에서 모든 것이 가려질 것이다.

Explore Ballantine's Innovation

2008년 첫 대회 이후 발렌타인 챔피언십은 그만의 독특한 전통을 지금까지 꾸준히 이어 오고 있다. '발렌타인 17 골프 리미티드 에디션'과 '발렌타인 챔피언십 블렌드'는 그 전통의 결정체이자 여타 골프 대회와는 차별화되는 요소로 어번 대회의 상징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Innovation 03

2013 Ballantine's Championship Blend

우승자에 의한, 우승자를 위한 위스키
2013 발렌타인 챔피언십 블렌드

발렌타인과 골프의 장기적인 관계를 지속하면서 두 분야의 열정과 전문성을 공유하기 위한 상징적인 제품, '발렌타인 챔피언십 블렌드'. 발렌타인은 전년도 대회 우승자와 마스터 블렌더의 합작으로 탄생한 '2013 발렌타인 챔피언십 블렌드'를 새롭게 선보였다.

매년 발렌타인 챔피언십이 시작될 즈음이면 새로운 챔피언십 블렌드를 공개하는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발렌타인은 올해도 어김없이 '2013 발렌타인 챔피언십 블렌드'를 공개했다. 41년 이상 숙성된 원액을 비롯하여 희소성 높은 원액들만을 블렌딩하여 제작된 2013 발렌타인 챔피언십 블렌드는 2012년도 대회 우승자인 베른트 비스베르거와 발렌타인의 5대 마스터 블렌더 샌디 히슬롭의 협업으로 탄생했다. 이 특별한 합작을 통해 전 세계에 단 10병만 한정 생산된 올해의 블렌드는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진귀하고 특별한 위스키로,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독창적인 블렌딩과 그 희소가치로 주목 받고 있다.

2013 발렌타인 챔피언십 블렌드 중 첫 번째 병은 올해의 챔피언에게 수여될 예정이다. 또 다른 한 병은 챔피언십 기간 동안의 경매 행사를 통해 그 주인공을 가릴 예정으로 그 수익금 전액은 전통에 따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될 예정이다.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발렌타인 챔피언십 블렌드를 소장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발렌타인 주요 바(bar)에서는 발렌타인 17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단 한 명에게 발렌타인 챔피언십 블렌드를 받을 수 있는 특권을 준다. 페르노리카 코리아 인터내셔널 위스키 마케팅 김경연 팀장은 "매년 4월에 개최되는 국내 유일의 유러피언 투어인 '발렌타인 챔피언십'은 소비자들에게 세계적인 선수들의 경기 모습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귀중한 경험을 선사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트로피 투어, 발렌타인 챔피언십 기념 '발렌타인 17 리미티드 에디션' 출시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더욱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페르노리카 코리아, 2013 발렌타인 챔피언십 블렌드 선보여

페르노리카 코리아가 2013 발렌타인 챔피언십을 앞두고 지난 3월 17일, 신세계백화점 본점에서 '2013 발렌타인 챔피언십 블렌드'를 공개했다.

GREAT BLENDS, *LEAVE GREAT* IMPRESS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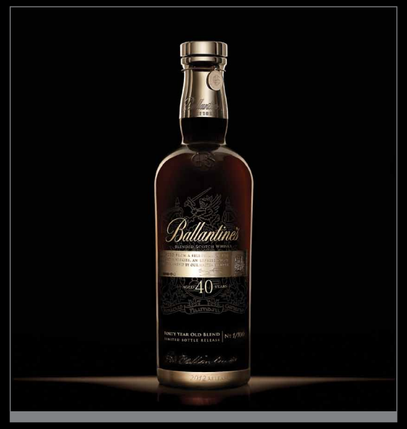
2013 발렌타인 챔피언십 기념 한정 위스키 **발렌타인 17 골프 리미티드 에디션**

위대한 위스키 블렌드는 깊은 인상을 남긴다. 항상 변함없이 완벽한 조화로움 속에서도 새로움과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발렌타인 위스키를 일컫는 말이다. 페르노리카 코리아의 명실상부한 No.1 프리미엄 스카치 위스키 브랜드 '발렌타인'은 국내 유일의 유러피언 투어 '발렌타인 챔피언십'의 가치와 그 품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소장 가치는 더욱 높인 '발렌타인 17 골프 리미티드 에디션'을 새롭게 선보인다.

'2013 발렌타인 챔피언십'을 기념하여 출시된 '발렌타인 17 골프 리미티드 에디션'은 우아하고 부드러운 기존 '발렌타인 17'의 완벽한 블렌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패키지를 전혀 새로운 스타일로 탈바꿈시키는 데 성공했다. 사실 '발렌타인 17 리미티드 에디션'이 출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발렌타인 챔피언십을 기념하는 골프 리미티드 에디션이 매년 출시되어 왔지만, 올해처럼 보틀 및 패키지 자체를 새로운 디자인으로 선보인 것은 처음이다.

이번 에디션은 발렌타인과 골프 사이의 특별한 관계와 골프 리미티드 에디션의 전통이 처음으로 반영된 새로운 보틀 디자인으로, 진정한 의미의 리미티드 에디션이라 볼 수 있다. 그린 컬러의 보틀에 골퍼 이미지와 함께 발렌타인의 'B' 로고를 더해 발렌타인 챔피언십이 공유하고자 하는 가치를 강조하고 발렌타인만의 골프 헤리티지를 소비자들에게 다시 한 번 전달하고 있다.

발렌타인 17은 우아하고 균형 잡힌 부드러움으로 위스키도 예술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발렌타인의 대표작으로 가장 이상적인 위스키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차별화된 보틀 및 패키지 디자인으로 '발렌타인 17'의 정통성과 품격에 소장 가치를 더했다는 평을 받고 있는 이번 '발렌타인 17 골프 리미티드 에디션'은 3월 15일부터 전국 주요 백화점 및 할인 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Ballantine's 40

두 거장의 손끝에서 실현된 200여 년간의 열망

발렌타인 40년은 최상의 위스키를 만들고자 했던 창립자 조지 발렌타인의
열망을 200여 년의 세월을 넘어 마침내 실현시킨 위스키의 정수다.
마스터 블렌더 샌디 히슬롭과 세계적인 세공 장인 리차드 폭스가
합작하여 탄생한 이 명작은 매년 단 100병만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낸다.

Ballantine's 30

소수의 선택된 분께만 허락되는 최고의 프리미엄

발렌타인 30년은 수퍼 프리미엄 스카치 위스키 중 단연 최고 제품이다.
수작업으로 직접 고른 몰트와 그레인 위스키가 최소 30년의 숙성 기간을
거쳐 완벽의 경지에 이르게 될 때, 비로소 소수만이 즐길 수 있는
최고의 명품 위스키가 탄생한다.

Ballantine's Limited

진귀한 몰트만으로 빚어낸 최상의 위스키

발렌타인 리미티드는 상업적으로 판매되지 않는 희소성 높은 몰트들로
블렌딩되어 그 특별함을 더한다. 가장 진귀한 원액과 3대의 마스터
블렌더에 의해 완성된 장인정신의 결정체답게 병마다 고유번호가 새겨져
있으며, 고급스러운 우드 프레임에 가죽 느낌의 커버가 품격을 높인다.

Ballantine's 21

예술적 스타일을 지닌 스코틀랜드의 자부심

발렌타인 21년은 위스키 전문가와 애호가들이 찬사를 아끼지 않는 위스키로,
반짝이는 황금색, 향기로운 꽃향기, 아로마틱한 풍미 등 오묘한 특성을 갖고 있다.
고급 위스키의 전형으로 칭송 받는 발렌타인 21년은 비단처럼 부드럽게
혀에 감기는 은은하고도 긴 여운을 지닌 위스키의 대명사다.

DISCOVER THE LEGEND

스카치 위스키를 예술과 장인정신의 결정체로 승화시킨 조지 발렌타인. 그의 업적은 발렌타인만의 휘장을 통해 인정받았다. 고귀한 유산과
전통을 숭배하고 끊임없는 열정과 혁신성의 결과물로서 칭송받는 그의 업적은 '모든 인류의 친구(Amicus Humani Generis)'라는
시공을 초월한 발렌타인만의 모토를 오늘날까지 실현 가능케 하며, 그 스토리는 모든 이에게 살아있는 전설로 이어져온다.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

Ballantine's
LEAVE AN IMPRESSION

Ballantine's 17

이상적인 스카치 위스키의 가치를 실현

발렌타인 17년은 선명한 황금 호박색으로 오크 향의 달콤함과 감미로운 바디감을 지니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이 평가되는 위스키 중 하나다. 우아하고 균형 잡힌 부드러움으로 위스키도 예술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준 발렌타인의 대표작이다.

Ballantine's 17 Glenburgie 200th. Anniversary Edition

1st. edition 발렌타인 17 글렌버기 200주년

발렌타인 17년의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한 시그니처 디스틸러리 에디션의 첫 번째 버전. 글렌버기 증류소의 200주년을 기념하여 탄생된 소장 가치가 높은 제품으로, 사과 향에 꿀의 달콤함이 조화를 이루고, 오렌지 맛이 벨벳처럼 부드러운 감촉으로 오랜 여운을 남긴다.

Ballantine's 17 Scapa Edition

2nd. edition 발렌타인 17 스카파

스코틀랜드 하이랜드 지역에 위치한 스카파의 풍부한 풍미를 담은 스페셜 에디션. 이국적이고 미스터리어스하며 드넓은 스카파 해안의 지역적인 특성이 반영되었으며, 발렌타인의 완벽한 부드러움의 근간이 되는 스카파 몰트가 강조되어 풍부한 과일의 맛과 바닐라 향이 조화를 이룬다.

Ballantine's 17 Miltonduff Edition

3rd. edition 발렌타인 17 밀튼더프

발렌타인 17의 우아한 부드러움의 근간을 이루는 밀튼더프 몰트가 맛과 향에 크리미하고 따스한 느낌을 부여한다. 향긋한 꽃 내음, 과즙이 풍부한 오렌지, 배즙의 풍부한 과일 향에 계피의 스파이시한 풍미가 밀튼더프 고유의 스타일과 완벽하게 어우러진다.

THE ORIGINAL

세계 최초의 17년산 위스키, 발렌타인17. 이 진귀한 블렌디드 위스키는 1930년대 창립자 조지 발렌타인(George Ballantine)에 의해 탄생한 이후 지금까지도 위스키 애호가들에게 하나의 기준으로 변함없이 자리하고 있다. 수 년간 아메리칸 오크통에서 숙성되어 특별한 부드러움을 선사하는 과일 향은 우아하면서도 세련된 발렌타인만의 시그니쳐 스타일과 완벽한 균형을 이룬다.
'진정한 오리지널은 오랜 세월이 흘러도 건재하다.' 그 증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

Ballantine's
LEAVE AN IMPRESSION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

"It's been an absolute pleasure for me to work with Bernd and create this completely bespoke and precious blend. Much dedication and genuine craftsmanship have resulted in the creation of this extremely rare and exclusive bottle"

Sandy Hyslop

Ballantine's Master Blender

"Partnering with the Ballantine's Master Blender to create a blend that reflects my own personal tastes and also has all the character of a true Ballantine's blend has been a unique and memorable experience and I am honoured to have been involved"

2012 Ballantine's Championship Winner

Ballantine's
2013
Championship Blend
Aged 41 Years
Blended Scotch Whisky
No 1 of 10
Exclusive Limited Release

Ballantine's
Leave an Impression

Ballantine's
2013
CHAMPIONSHIP
AGED 41 YE
BLENDED SCOTCH
Sandy Hyslop
Ballantine's
Master Blender
No 1 of 10
EXCLUSIVE LIMITED RELE

04

Art of
Blending

Discover tastes of Ballantine's

전혀 생각지 못했던 조합이 완벽한 조화를 이룰 때, 놀라움과 감동은 두 배가 된다.
위스키 자체만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는 발렌타인이 제안하는 색다른 음용 스타일,
그 창조적 발상의 여운을 음미할 시간.

>>
(좌) 은은하면서도 산뜻한 매력의 '발렌타인 17 핫토디'
(우) 부드럽고 달콤한 윈터 칵테일 '발렌타인 17 핫초코'

Ballantine's 17

따뜻하고 달콤하게 즐기는 윈터 칵테일
발렌타인 17 핫초코 & 핫토디

발렌타인은 국내 최초로 스노골프 경기가 펼쳐진 아난티 클럽 서울에서 발렌타인 17을 베이스로 하는 윈터 칵테일을 처음 선보였다. 눈 덮인 아름다운 설경을 감상하며 즐기는 윈터 칵테일 한 잔의 여유. 이번 기회로 발렌타인은 또 하나의 새로운 음용 스타일을 제안하면서 아트 오브 블렌딩이 선사하는 최고의 가치를 이어가고 있다.

발렌타인은 그간 다양하고 색다른 음용법을 지속적으로 선보이며 발렌타인 위스키의 숨겨진 매력을 좀 더 많은 사람이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지난해에는 평소 위스키를 부담스러워 하는 젊은 층과 여성 소비자들을 겨냥하여 슬러시 타입의 '발렌타인 17 아이스'와 토닉 워터가 더해진 상큼한 매력의 칵테일 '발렌타인 17 후레쉬'로 새로운 음용 스타일을 제시한 바 있다. '발렌타인 17 아이스'와 '발렌타인 17 후레쉬'가 발렌타인 17의 고유한 맛에 상쾌하고 청량한 느낌을 더했다면, 이번에 선보인 '발렌타인 17 핫초코', '발렌타인 17 핫토디'는 겨울이라는 계절적인 특징을 반영하여 '따뜻하고 달콤하게 즐길 수 있는 윈터 칵테일'에 초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한편 발렌타인은 보다 격 있는 위스키 음용 문화를 확산하고 위스키를 좀 더 제대로 음미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테이스팅 퍼스트(Tasting First)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이 캠페인의 일환으로 발렌타인은 아트 콜라보레이션, 발렌타인 컨셉룸, 멘토링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접근 방식을 통해 발렌타인의 숨겨진 매력과 진정한 가치를 폭넓게 전하고 있다. 그 자체만으로도 완벽하고 조화로운 발렌타인 블렌드에 혁신적인 발상을 더한 새로운 음용 스타일을 제시하며, 그 속에 발렌타인이 선사하는 블렌딩의 미학을 자연스럽게 녹여 내고 있는 것이다.

New Styles of Ballantine's 17

사계절 내내 발렌타인의 새로운 스타일을 발견하다

매번 창조적이고 다양한 스타일링을 선보이는 발렌타인 17의 새로운 음용 스타일. 이는 발렌타인 17 고유의 조화롭고 풍부한 부드러움을 극대화하면서도 누구나 편하게 즐길 수 있다는 매력을 지닌다. 시원하고 청량한 칵테일부터 보다 따뜻하고 감미롭게 즐길 수 있는 윈터 칵테일까지, 이를 통해 계절에 관계없이 발렌타인의 색다른 매력을 마주할 수 있다.

NEW

달콤함과 부드러움의 조화
Ballantine's 17 Hot Choco

'발렌타인 17 핫초코'는 달콤한 핫초코에 발렌타인 17 샷을 첨가하고 그 위에 마시멜로우를 함께 곁들인 윈터 칵테일로, 한층 부드럽고 조화로운 조합으로 남녀 모두가 즐기기에도 손색이 없다. 발렌타인 17 핫초코는 약 한 달간 아난티 클럽 서울에서 진행된 스노골프 기간 중 발렌타인 17 핫토디와 함께 큰 인기를 얻었다. 특히 추운 겨울, 스노골프를 치다가 잠시 쉬는 동안 마시는 발렌타인 17 핫초코는 긴장한 몸을 녹이고 기운을 북돋는 데 제격이라는 평을 받았다.

NEW

마음속까지 따뜻해지는 칵테일
Ballantine's 17 Hot Toddy

'발렌타인 17 핫토디'는 따뜻한 얼그레이 홍차에 발렌타인 17 샷과 레몬 슬라이스, 정향이 더해져 산뜻하면서도 은은한 매력을 선사한다. 뱅쇼가 '따뜻하게 즐기는 와인'이라면, 핫토디는 '따뜻하게 즐기는 위스키'다. 위스키의 본고장 스코틀랜드에서는 오래 전부터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따뜻한 홍차에 위스키를 타서 '약'처럼 마시는 풍습이 있는데, 이를 핫토디(Hot Toddy)라 부르며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이 즐겨 오고 있다.

닫혀 있던 맛과 향의 재발견
Ballantine's 17 Miltonduff Whisky & Water

프리미엄 미네랄워터와 블렌딩된 '발렌타인 17 밀튼더프 위스키 & 워터'는 발렌타인 17 밀튼더프 특유의 부드러우면서도 달콤한 풍미를 더욱 돋보이게 한다. 물 혹은 미네랄워터가 위스키의 닫힌 향을 풀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약간의 물에 희석된 위스키는 더욱 깊은 맛과 향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부담 없이 즐기는 산뜻한 칵테일
Ballantine's 17 Highball

'발렌타인 17 하이볼'은 위스키와 탄산수의 절묘한 조합이 돋보이는 칵테일로 시원하고 상쾌한 맛을 즐길 수 있다. 미국 서부 시대, 인디언의 습격이 없을 때 신호수가 깃발을 사용하지 않고 공을 높이 띄워 안전함을 표시한 데서 유래된 '하이볼'이라는 명칭은 부담 없이 가볍게 즐기는 '안전한 칵테일'이라는 의미로 이 칵테일에 붙여졌다.

청량한 맛이 돋보이는 칵테일
Ballantine's 17 Fresh

'발렌타인 17 후레쉬'는 발렌타인 17에 토닉 워터와 레몬 슬라이스가 담겨 산뜻하고 청량한 맛이 돋보이는 칵테일로 발렌타인 17을 시원하고 상쾌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다. 발렌타인 17의 또 다른 매력을 찾아낼 수 있으며, 낮은 알콜 도수로 평소 위스키가 부담스러웠던 사람이나 여성들도 부담 없이 가볍게 즐길 수 있다.

눈꽃 느낌의 시원한 슬러시
Ballantine's 17 Ice

'발렌타인 17 아이스'는 영롱한 황금빛 앰버 컬러의 발렌타인 17과 토닉 워터가 잘 어우러져 마치 새하얀 눈꽃 느낌의 슬러시로 재탄생했다는 뜻을 담고 있다. 위스키와 슬러시의 만남 자체만으로도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발렌타인 17 아이스'는 눈처럼 소복이 쌓인 모습이 신선한 매력을 선사한다.

Ballantine's Mentoring Class

프레스티지 브랜드가 전하는 특별한 여정
위스키 클래스에서 만나는 발렌타인

독보적이면서도 품격 높은 가치를 실현하는 명품 시계와 명품 위스키, 그리고 명품 매거진의 특별한 만남. 이들의 새로운 콤비네이션이 자아내는 세련된 분위기 속에서 발렌타인은 감각적인 브랜드 헤리티지를 선사하며 모두에게 깊이 남을 향기로운 매력을 선사했다.

지난 2월 3일, 콘래드 서울에서 매거진 '노블레스'가 주최하는 워치 & 위스키 클래스가 진행됐다. 이번 클래스는 고품격 워치 브랜드 '제니스'와 '해리윈스턴'이 함께 하는 〈워치 클래스〉가 1부에, 명품 위스키 브랜드 '발렌타인'의 오랜 역사와 진정한 가치를 알아가는 여정, 〈위스키 클래스〉가 2부에 마련되어 참석자들에게 각 브랜드 만의 특별한 헤리티지를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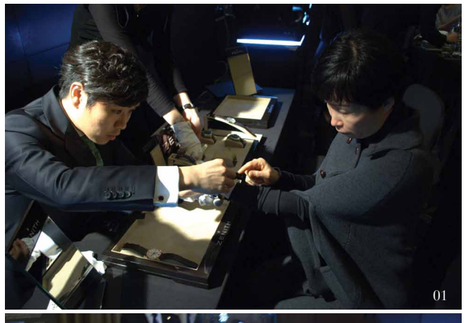
오전과 오후, 두 차례로 진행된 노블레스 워치 & 위스키 클래스에는 콘래드 서울 펄스에이트 회원과 VIP를 비롯한 오피니언 리더 8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클래스 시작 전 로비에는 애프터눈 티와 핑거 푸드가 세팅되었고, 별도로 마련된 발렌타인 부스에서는 참석자들을 위한 웰컴 칵테일을 제공했다. 행사장 입구 쪽에는 발렌타인 관련 영상이 상영되는 디스플레이 배너가 진열되어 발렌타인 특유의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무드를 한층 더 느낄 수 있었다. 위스키 클래스에 앞서 진행된 워치 클래스는 제니스, 해리윈스턴 워치 브랜드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와 기계식 명품 시계의 역사, 최신 트렌드를 소개하는 자리로 타임포럼의 정희경 대표가 진행을 맡았다. 행사장의 양옆으로는 각 브랜드를 대표하는 라인업이 쇼케이스 및 테이블에 진열되어 특히 브레이크 타임에 참석자들이 큰 관심을 보이는 모습이었다.

이어 발렌타인 브랜드 앰버서더 김지수의 설명으로 시작된 발렌타인 위스키 클래스는 'Timeless Classic'을 주제로, 세대에서 세대로 불변의 가치를 이어오고 있는 발렌타인의 오랜 역사와 그 속에 담긴 헤리티지를 전했다. 스코틀랜드 4개 지역에 대한 소개와 지난해 출시된 발렌타인 40에 대한 특별한 의미가 담긴 영상과 더불어 변하지 않는 발렌타인만의 가치를 전수하고 있는 현 마스터 블렌더 샌디 히슬롭에 대한 영상물도 클래스 중간중간 함께 상영되었다. 특히 이번 클래스는 단순한 설명 전달 혹은 안내에 그치지 않고 상호간의 질의 응답이 즉석에서 자유롭게 이어졌다는 점에서 참여자들의 높은 관심도와 흥미가 반영되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실제로 발렌타인에 대해 매우 흥미로워하며 멘토링 클래스 내내 집중하고 몰입하는 참여자들이 심심치 않게 눈에 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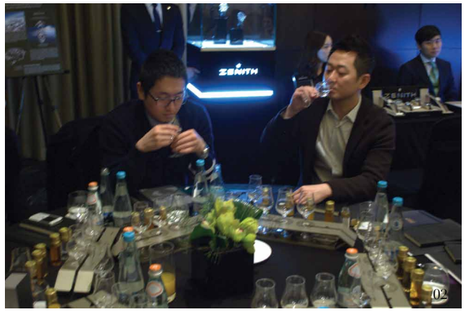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위스키 테이스팅이 시작됐다. 브랜드 앰버서더의 안내에 따라 테이블에 미리 세팅된 뉴스피릿, 글렌버기 몰트, 그레인 위스키, 발렌타인 17, 발렌타인 30 순으로 테이스팅이 진행됐다. 다소 생소한 원액과 몰트에 대해 중간중간 궁금증을 드러내거나 감탄하며 참석자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테이스팅에 임했다. 시각, 후각, 미각을 통해 느껴지는 맛과 향을 음미하며 오래도록 남는 여운까지 기억에 깊이 담아두려는 모습이었다. 또한 이들은 미네랄워터와 블렌딩하는 새로운 음용 방법을 통해 숨겨진 위스키의 맛과 향을 더욱 깊게 즐겼으며, 테이스팅 키트와 함께 제공된 테이스팅 노트에 각각의 맛과 향을 놓치지 않고 메모하는 열정을 비추기도 했다. 위스키 클래스의 마무리는 스코틀랜드식 인사인 '슬란지바'를 외치는 동시에 다같이 건배를 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끝을 맺었다.

01

>>
01. 관심 있는 모델을 직접 착용해 볼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됐다
02. 진지한 표정으로 발렌타인 위스키 시음에 임하는 클래스 참석자



01



02

>>
01. 위스키 클래스는 발렌타인 앰버서더 김지수 대사가 맡아 진행했다
02, 03. 테이스팅 키트가 테이블마다 세팅되어 발렌타인의 맛과 향을 참석자들이 직접 음미할 수 있도록 했다

02

03

"새롭게 경험한 발렌타인, 앞으로 더 알아가고 싶은 위스키가 되었습니다!" _대한 피부 모발 학회장/연세피오니클리닉 원장 **이희전**

평소에 발렌타인을 지인들에게 많이 선물 받곤 했는데, 왜 사람들이 발렌타인을 특별한 분들에게 선물하는지 오늘에서야 그 의미를 알 것 같습니다. 발렌타인을 직접 맛보게 된 것은 이 자리가 처음인데, 오래도록 남는 맛과 향에 대한 좋은 기억 덕분에 오늘을 계기로 발렌타인을 더욱 더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남편도 이 자리에 함께했으면 더 많은 느낌을 공유했을 텐데, 아쉽네요. 맛보기 힘든 증류 원액인 뉴스피릿과 매우 부드러운 느낌을 선사했던 발렌타인 30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GET CLASSY *With* BALLANTINE'S 17

골프 채널을 대표하는 박서진, 장유례, 추보라, 김미영 네 명의 아나운서가 프라이빗 클럽 스테이트 룸에 모였다. 발렌타인 17 시리즈 론칭을 기념한 연말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발렌타인 17 시리즈와 어우러져 더욱 흥겨웠던 파티 현장을 담았다. editor **Jun Min Sun**

* 위 기사는 매거진 골프포위민 2013년 1월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골프 채널의 아나운서들과 함께한 발렌타인 17 시리즈

SBS골프의 〈골프투데이〉 진행을 맡고 있는 박서진 아나운서와 여성 최초 당구 캐스터로 데뷔해 올해부터는 골프 방송까지 맡을 예정이라는 SBS ESPN의 장유례 아나운서, 'J골프 매거진'을 진행하고 있는 추보라 아나운서, 〈투어 J골프 매거진〉의 중계와 MC를 맡고 있는 김미영 아나운서 등 우리나라 양대 골프 채널의 간판 아나운서 네 명을 발렌타인 17과 밀튼더프 에디션 론칭을 기념한 연말 파티에 초대했다. 장소는 중구 회현동에 위치한 프라이빗 클럽 스테이트 룸. 특별히 게스트로 골프 채널 아나운서들을 초대한 것은 발렌타인과 골프가 스코틀랜드에 본거지를 두고 있다는 각별한 인연 때문인데, 국내 유일의 유러피언 투어인 '발렌타인 챔피언십'이 매년 개최됐다는 사실 또한 한몫 단단히 했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기 때문일까, 그녀들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위스키의 대명사 발렌타인을 제대로 알면 위스키의 깊은 맛을 느낄 수 있을 거라는 호기심에 가득 차 있었다.

이번 파티는 발렌타인 17의 세 번째 에디션인 밀튼더프를 소개하는 것을 서두로 오리지널과 밀튼더프의 향과 맛을 음미해보는 프리이빗한 테이스팅 클래스가 진행됐다. 그리고 이어서 밀튼더프 에디션과 잘 어울리는 웨스턴 요리를 선사해 이번 디스틸러리 시리즈의 독특한 맛과 향을 경험할 수 있는 즐거움까지 제공했다. 추보라 아나운서는 "사실 위스키는 여자가 마시기에 조금 부담스럽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스트레이트로 마시기보다는 미네랄워터나 얼음을 곁들여 마셨는데, 스트레이트로 음미해보니 본연의 향과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것 같다. 장미의 향긋한 꽃 내음과 오렌지 등의 풍부한 과일 향이 배가돼 이 에디션은 여성들도 즐기기에 좋은 것 같다"고 했다. 김미영 아나운서 역시 제대로 알고 마시니 위스키의 깊은 맛을 느낄 수 있고, 왜 남자들이 발렌타인에 열광하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블렌딩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최상의 경험이었다며 극찬했다. 이에 발렌타인 브랜드 관계자는 "발렌타인 17 밀튼더프 에디션은 그동안 만나봤던 발렌타인에서 느낀 부드러움과 우아함이 한층 강조되어 여성들도 충분히 좋아할 풍미다"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위스키도 와인을 마시듯 향을 먼저 느끼고 난 뒤 천천히 맛을 음미해야 한다. 향을 제대로 느끼기 위해서는 입구가 좁은 위스키 잔을 이용하는 것이 좋은데, 처음 위스키를 따르고 향을 맡은 후에 약간의 물을 넣은 후 다시 향을 맡으면 처음과는 다른 향이 나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며 위스키를 제대로 즐기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곁들였다.

혹시 추운 겨울, 칼바람을 맞으면서 연말 파티를 계획하고 있다면 참석한 사람들에게 이번에는 발렌타인 17 시리즈를 대접하면 어떨까. 파티 때 으레 선보이는 와인이나 샴페인보다 위스키를 준비한다면 호스트의 풍격과 에지가 한층 높아질 테니까 말이다. 또 맛은 물론 향까지 훌륭해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데 효과적일 거라 확신한다.

포토그래퍼 · 이용기 | 문의 · 웰크라카코리아(02 3466 6808)

발렌타인&골프, 두 명품의 만남

골프와 스카치위스키 모두 스코틀랜드에 본거지를 두고 있어 골프와 발렌타인은 각별한 인연을 가지고 있다. 골프가 1450년 초 세인트앤드루스, 레이스 등 스코틀랜드 동쪽 해안 지방에서 시작된 이후 전 세계에 보급되었듯 발렌타인의 창시자인 조지 발렌타인 역시 1827년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처음 주류 사업을 시작한 후 사업가적 통찰력을 바탕으로 이를 세계적인 비즈니스로 발전시켰다는 면에서 그렇다. 태어난 연도는 다르지만 같은 고향을 가지고 있고 후에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쳤다는 점만으로도 발렌타인과 골프는 공통적인 가치를 지니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그뿐만 아니라 발렌타인과 골프는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균형 잡힌 밸런스와 와유내강의 정신이라는 공통분모까지 갖고 있다. 그러니 열정과 세련미를 공유하고 품질에 대한 헌신과 완벽에 가까운 숙련된 솜씨를 요한다는 면에서도 럭셔리 스포츠인 골프와 슈퍼프리미엄 스카치위스키 발렌타인이 만난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발렌타인 17, 새로운 스타일을 만나다

발렌타인 17 시리즈 중 밀튼더프 론칭을 기념해 전국의 5개 주요 호텔에서 품격 있는 파인 다이닝을 즐길 수 있다. 스타일리시한 여성뿐만 아니라 트렌디한 비즈니스맨이라면 취향대로 즐겨보자.

1 롯데호텔 서울 일식당 모모야마에서 마련한 젠사이, **2** 부산 웨스틴 조선호텔, 오킴스 레스토랑에서 맛볼 수 있는 비터스윗 초코 브라우니&브리오슈 브레드 푸딩, **3**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 마르코 폴로 레스토랑에서 준비한 오룡해삼, **4** 힐튼 남해 골프&스파 리조트에서 만나볼 수 있는 구운 야채와 감자를 곁들인 전복 스테이크.

05

Ballantine's
& Women

The Way That Women Love Ballantine's

발렌타인과 여성, 그리고 골프. 세 단어가 가장 조화로우면서도
아름다운 하모니를 연출하며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순간, 비로소 숨어 있던
각각의 다양한 매력이 눈부시게 빛나기 시작한다.

Women in Ballantine's Snow Golf Championship

발렌타인 스노골프 챔피언십에서 만난 아름다운 여성 골퍼들

발렌타인 스노골프 챔피언십에 유독 여성 참가자들이 많았던 이유. 운치 있는 새하얀 풍경을 바라보며 날리는 낭만적인 티샷, 따뜻하게 즐기는 발렌타인 17 핫초코 & 핫토디. 라운딩 외 다양한 즐길거리와 아름다운 경관은 추운 날씨에도 그녀들을 미소 짓게 했다.

한 달여간 '아난티 클럽 서울'에서 국내 최초로 진행된 스노골프. 스노골프는 눈 덮힌 대자연 속에서 펼쳐지는 겨울 스포츠로, 5홀로 구성된 골프 코스는 기량의 차이를 떠나 골프 게임처럼 남녀노소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번 스노골프 체험 기간 동안에는 이색 스포츠인 스노골프를 경험하려는 여성들을 곳곳에서 볼 수 있었다.

페르노리카 코리아 마케팅팀을 대표하는 여성인 송현귀 이사 역시 발렌타인 스노골프 챔피언십 대회 당일 직접 스노골프 라운딩에 참여하여 5홀의 경기를 마쳤다. 송 이사는 "스노골프는 카트가 운영되지 않지만, 오히려 홀과 홀 사이를 걸으면서 경기를 하다 보니 전혀 추위를 느끼지 못했고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기회"라며 스노골프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또 국내 최초로 스노골프를 선보이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클래식하면서도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스포츠인 골프에 부가적으로 조금 더 재미있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더하려는 시도로, 골프의 비시즌인 겨울에도 즐길 수 있는 스노골프를 기획했다"며 "처음에는 낯설게 느끼시던 분들도 치다 보면 예상보다 반응이 매우 좋아서 올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욱 많은 분들을 초대하여 다양하고 새로운 경험을 드리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렌타인 스노골프 챔피언십의 예선과 결선의 조 편성은 남녀의 구분을 두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렌타인 스노골프 챔피언십 첫 우승자이자 국내 최초 스노골프 챔피언이라는 엄청난 타이틀은 여성 참가자인 곽재원 씨에게 주어졌다. 3위 역시 여성 참가자 김진문 씨가 차지하는 등 이번 대회의 가장 큰 특징은 다수의 여성들이 두각을 보였다는 점이다. 한파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성 참가자들은 각 조에서 침착한 라운딩을 펼치며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글램 피싱, 아이스 퍼팅, 베스트 드레서 선정 등 버라이어티한 이벤트가 가득했던 한 달간의 여정을 통해 남성들은 물론 많은 여성들도 스노골프만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되었음은 물론이다.

>>
영광스런 우승자 타이틀과 함께
발렌타인 40년을 수여 받은 곽재원 씨가
많은 주목을 받으며 감격스런
수상 소감을 밝히고 있다

"올해의 시작을 발렌타인과 함께 뜻깊게 시작할 수 있어 더없이 행복합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스노골프에 참가하여 즐겁고 값진 경험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생각지도 않은 우승 타이틀까지 수여받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1번 홀에서 카트 도로를 걷다가 무릎까지 올라오는 눈 위를 밟았던 순간은 이제까지 느껴볼 수 없었던 독특한 경험으로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깔끔한 진행은 물론 함께 라운딩했던 동반자들과의 호흡도 좋았고요. 특히 경기 중간 그늘집에서 발렌타인 위스키 한 샷을 마시고 더욱 힘을 낸 것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게 한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며 라운딩을 할 수 있는 스노골프만의 매력을 많은 분들이 함께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평소에도 위스키를 즐기곤 하는데, 오늘 선사 받은 발렌타인 40은 아주 특별한 블렌드인 만큼 오래도록 소중하게 간직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매년 개최되는 발렌타인 챔피언십도 빠지지 않고 관람하고 있는데, 올해는 꼭 한국 선수가 챔피언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국 선수들 파이팅하세요! 저도 직접 가서 응원하겠습니다.

_2013 발렌타인 스노골프 챔피언십 우승자 **곽재원**

"기록적인 한파에도 불구하고, 스노골프를 모두 함께 즐길 수 있어 좋았습니다"

일반 필드에서보다 스노골프는 스윙을 조금 작게 해야 한다고 해서 하프 스윙을 했는데, 볼이 조금 더 똑바로 날아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긴 하네요. 언니와는 늘 같이 라운딩을 하는데, 스노골프도 첫 시작을 둘이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골프와 위스키 모두 좋아해서 발렌타인과 발렌타인 챔피언십에 관심이 많습니다. 평소 발렌타인을 자주 즐기기도 하는데, 발렌타인 21을 특히 선호하는 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온더락 스타일로 즐길 때 매력적인 맛과 향이 더욱 잘 느껴지더라구요. 발렌타인 챔피언십은 유럽의 내로라하는 유명 선수들의 플레이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국내 최고의 대회이기도 해서 매년 언니와 함께 꼭 참석해서 관전하고 있습니다.

_**전현숙** Tee Golf Studio 대표

"새하얀 눈이 덮힌 그라운드에서 경험한 스노골프, 색다른 감흥을 느꼈습니다"

눈이 쌓인 티 그라운드나 IP 지점을 잘 다져 놓고 사전 준비를 잘 해주셔서 편하게 경기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푸르른 필드에서만 골프를 치다가 하얀 눈 위에서 경험하는 스노골프는 매우 색다르고 재미있었어요. 깔때기 홀이라든지, IP 지점에서 티를 꽂고 칠 수 있다는 점 등 독특하고 흥미로운 요소도 한 몫 했습니다.
특히 라운딩에 임하기 전 '발렌타인 17 핫초코'를 맛보게 되었는데, 몸이 약간 데워지는 효과를 느꼈다고 할까요? 추운 날씨에 긴장된 몸을 녹여주어 한파를 느낄 새가 없었네요. 평소에는 발렌타인 17을 즐겨 마시는데, 아무래도 자주 먹다 보니 그 특유의 풍미에 가장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_**전현지** Tee Golf Studio 이사 / KLPGA 투어프로

발렌타인 17 밀튼더프 에디션 & 아트 글라스 발렌타인 17 디스틸러리 세 번째 에디션 밀튼더프는 오렌지의 상큼함, 장미, 플로랄 향, 스파이시한 계피 향의 풍미가 완벽히 어우러져 있다. 유리 예술가 홍성환 작가의 협업을 통해 탄생한 아트 글라스는 발렌타인의 우아한 블렌딩 미학을 오감으로 체험하게 한다.

ART OF LIFE, ART OF BLENDING

지구를 몇 바퀴 돌아야 이처럼 독특하고 생경한 글들이 나올 수 있을까. 유명 아나운서에서 여행가, 작가로 변신한 손미나를 만났다. 완벽한 블렌딩의 미학을 바탕으로 매년 새롭고 독특한 방식의 리미티드 에디션을 선보이는 발렌타인처럼, 그녀는 언제나 뜨거운 열정과 충만한 자신감으로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는다. editor **Cho Jae Kook**

작가라는 호칭이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지난 5년간 그녀가 번역하고 집필한 책은 총 6권. 프랑스 파리와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 등을 여행하며 완성한 단단한 언어들이다. 마이크 대신 펜을 쥐었다는 것을 제외하면 여전히 세상과 소통하고 있는 중이다. "전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소통의 깊이와 말의 힘이 더욱 강력해진 것 같아요. 누군가 시간을 들여 제 글을 읽는다는 것에 대한 고마움이 책을 만드는 과정에 힘이 돼요." 9시 뉴스와 당시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하던 〈도전! 골든벨〉의 진행을 맡았던 당대 최고의 아나운서가 돌연 작가로 변신한 이유는 무엇일까? "처음 스페인을 여행하던 20대 때 미처 몰랐던 '나'에 대한 발견으로 많은 것이 변했어요." 세상에는 여러 갈래의 길이 있고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는 먼저 '나'를 잘 알아야 한다는 생각. 그녀가 자신을 발견하고 내면과 소통하는 방식은 낯선 곳에서 미지의 그들과 만나는 것이다. 〈스페인 너는 자유다〉와 〈다시 가슴이 뜨거워져라〉같이 손미나가 펴낸 여행 서적들은 공간과 시간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그곳에서 마주친 사람들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다. "여행지에 가면 그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일상을 보내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시장에 들르고 같은 음식을 먹다보면 자연스럽게 체화되는 것들이 있어요."

지난해 그녀는 첫 장편소설을 세상 밖으로 내보냈다. 대중에게 둘러싸여 화려한 일상을 보내던 아나운서 시절과 언어와 지난한 싸움을 벌이는 집필 과정은 지구 반대편만큼 거리가 있었다. "외롭고 힘든 작업이었어요. 처음 소설을 쓸 때 1년 반 동안 단 하나의 챕터도 완성하지 못한 정체의 시간이 가장 힘들었어요." 부침의 시간을 겪던 어느 순간 몇 개의 단어와 장면들이 머릿속을 헤집어놨다. 노트북 앞에 앉아 불과 몇 시간 만에 완성된 하나의 챕터가 〈누가 미모자를 그렸나〉의 실마리를 풀어줬다. 소설에 등장하는 장미와 레아, 테오와 로베르는 프로방스와 마르세유 등 프랑스 전역을 여행하며 시간과 공간에 이야기를 입혔다. 모두 조금씩 그녀를 닮아 있고 그녀가 낯선 곳에서 마주친 사람들의 표정을 띠고 있다. 그녀는 왜 소설가가 됐을까? 손미나는 '나는 왜 소설을 쓰게 되었을까?'라는 작가의 말에서 모든 것은 크루아상 한 조각으로 시작됐다고 적었다. 어느 날 문득 '나'를 둘러싼 세계가 낯설게 느껴진다면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회귀할 수 있을까? 그간 자신의 시선이 너무 수평적이었던 것이 아닌지에 대한 물음은 삶의 본질적인 의문과 자신에 대한 소통으로 이어졌고 그 귀결은 자연스럽게 소설가의 길로 이어졌다. 그녀는 앞으로도 계속 소설을 세상에 내보낼 것이다. 책에 적힌 대로 수족관의 아름다운 물고기를 보며 자란 호기심 많은 아이가 결국 바다에 나가듯이.

소설의 완성에 가장 큰 힘을 주었던 것은 골프였다. 국내에서 방송 일을 하던 시절 잠시 레슨을 받은 적은 있지만 바쁜 스케줄에 깊이 빠지지 못해 늘 아쉬운 부분이었다. 프로방스 지역에 머물며 소설을 완성하던 시절 언어의 숲에서 길을 잃을 때면 그린을 밟았다. "프랑스에서 처음 필드에 나갔을 때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 후로 종종 글이 막히거나 지칠 때면 재충전을 위해 골프장을 찾았어요." 특히 책이 완성되던 마무리 단계에서는 매일 필드에서 시간을 보냈다. 자연 속에서 자신과 벌이는 플레이를 통해 자신감을 회복했으며 그녀에게 치유의 시간이 되었다.

올해는 바쁜 한 해가 될 것이다. 지난해부터 준비했던 프랑스 여행 서적이 포근한 봄이 올 즈음 출간될 예정이고 여행에서 얻은 것들을 기반으로 몇 가지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최근 시작한 팟캐스트 방송 〈손미나의 여행 사전〉은 오랜만에 마이크를 잡고 대중과 만나는 시간이다. "아나운서 시절보다 자유롭고 편안한 느낌이 좋아요. 1회 방송 때는 가수 윤종신 씨와 함께 와인을 마시며 방송을 했어요." 1회 분량을 업로드한 지 일주일도 안 돼 6만 건의 다운로드를 기록한 것은 대중이 그만큼 손미나를 그리워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에서 보내는 근래의 시간은 항상 발렌타인과 함께한다. "소설이란 위스키와 같아서 술통 안에서 충분히 숙성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션 오펄란의 말처럼 지난한 시간을 보내고 세상과 만나는 발렌타인은 그녀가 파리에서 적어낸 소설처럼 깊은 여운과 맛을 전한다. "발렌타인은 여행에서 만난 낯선 사람이나 오랫동안 그리웠던 지인들과 함께 즐기기 좋은 소통 방식이에요." 손미나는 자신이 적어내는 글들이 발렌타인처럼 오랫동안 빛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 물론 변치 않는 아름다움까지 포함해서.

포토그래퍼 · 이진환 | 문의 · 라꼴렉시옹(02 6905 3775), 캐롤리나 헤레라(02 794 1571)

"발렌타인은 여행에서 만난 낯선 사람이나 오랫동안 그리웠던 지인들과 함께 즐기기 좋은 소통 방식이에요."

은은한 자카드 소재가 매력적인 네이비 원피스 **캐롤리나 헤레라,** 화려한 장식이 돋보이는 레이스 슈즈 **르네 까오빌라 by 라꼴렉시옹,** 네크리스와 링, 커프 모두 에디터 소장품.

* 위 기사는 매거진 골프포위민 2013년 1월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Ballantine's®

LEAVE AN IMPRESSION

Ballantine's Membership Club
발렌타인 멤버십 클럽 가이드

—

발렌타인 멤버십 클럽은 발렌타인을 사랑하는
비즈니스 리더들의 다양한 네트워킹의 장으로서
풍성하고 차별화된 혜택으로 품격이 다른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발렌타인 멤버십 클럽 가입 안내

발렌타인이 발급한 인증번호를 아래 발렌타인 멤버십 클럽 사이트에 입력하면
회원 가입이 가능합니다.

발렌타인 멤버십 클럽 사이트 _www.ballantinesmc.co.kr
문의 _발렌타인 마케팅팀 02-3466-5700

—

발렌타인 멤버십 클럽 혜택

발렌타인 멤버십 클럽은 골프에서 응용한 독특한 마일리지 제도를 선보입니다.
회원 분들의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에 따라 마일리지 샷(Shot)이 주어지며,
샷 적립에 의한 등급에 따라 발렌타인만의 독특한 혜택을 드립니다.
또한 멤버십 클럽 내의 유용한 소모임을 통해 인맥의 폭을 더욱 넓히실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01

2013 발렌타인 챔피언십 참가 특전

국내 유일의 유러피언 투어로 6회를 맞는 2013 발렌타인 챔피언십에
멤버십 클럽 회원들을 초대합니다. 각 혜택 이용 시 일정 샷(shot)이 차감됩니다.

A. 갤러리 교환권 2매(평일 또는 주말)
: 모든 회원 대상

B. 발렌타인 챔피언십 시즌권(대회 기간 동안 제한 없이 갤러리 입장 가능)
: 보기 플레이어(Bogie Player) 회원 중 샷(Shot)으로 교환 가능 / 100샷 차감

C. 발렌타인 챔피언십 VIP 패스(기간 중 VIP 마퀴텐트 등 클럽하우스 이용 가능)
: 프로 플레이어(Pro Player) 회원 중 일부 선발 / 300샷 차감
※ VIP 마퀴텐트는 발렌타인 챔피언십 관계자 및 발렌타인 주요 고객 분들을 위한 제한적 공간으로 스타 플레이어들의 인터뷰 및 사인회 등 발렌타인 챔피언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D. 발렌타인 챔피언십 오프닝 & 갈라 디너
: 싱글 플레이어(Single Player) 회원 중 일부 선발 / 500샷 차감
※ 발렌타인 챔피언십 오프닝 & 갈라 디너는 나흘간 펼쳐질 세기의 라운딩의 오픈을 알리는 전야제로 챔피언십에 출전하는 스타 플레이어들의 소개 등 유니크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E. 발렌타인 챔피언십 관련 선물 및 기념품 제공
: 싱글 플레이어(Single Player) 회원 이상 선발 / 기념품에 따라 추후 샷 공지 예정
※ 지난 발렌타인 챔피언십의 우승자들은 물론 스타 플레이어들의 사인이 담긴 발렌타인 17년 / 21년 및 다양한 기념품을 제공합니다.

02

발렌타인 제휴 바 혜택

발렌타인과 제휴된 바로부터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발렌타인을 판매하고 있는 전국의 주요 바들과의 제휴를 통해 발렌타인 멤버십 클럽 카드를 소지하신 분들께 더욱 특별한 서비스를 드리고자 합니다. 각 제휴 바 할인, 무료 안주 제공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모든 회원 등급에서 참여가 가능하며 별도 샷 차감은 없습니다.
또한 바 이용 후기를 올리실 경우 20샷이 제공됩니다.

03

발렌타인 제휴 바 예약 서비스 제공

발렌타인 제휴 바를 보다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예약(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휴 바 페이지의 '예약하기' 버튼을 통하여 실시간 예약을 하실 수 있으며, 추후 이용 후기를 올려 주실 경우 다양한 추가 혜택을 드릴 예정입니다.
※ 모든 회원 등급에서 참여가 가능하며, 별도 샷 차감은 없습니다.

04

발렌타인 멘토링 클래스 및 다양한 행사 초대

A. 발렌타인 멘토링 클래스 초대

발렌타인 멘토링 클래스는 위스키 전문가를 통해 발렌타인 브랜드 스토리부터 위스키 전반에 대한 정보 및 테이스팅 방법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또한 클래스에 참가하신 분들과의 폭넓은 네트워킹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B. 발렌타인 관련 행사 주최

발렌타인은 신제품 출시 행사 및 다양한 럭셔리 파티를 준비 중이며, 신제품 런칭 시에는 발렌타인 멤버십 클럽 회원 분들에게 먼저 선보일 예정입니다.
보기 플레이어 이상 등급 회원은 행사 참여 신청이 가능하며, 각 이벤트에는 본인을 포함한 동반 1인이 초대되고 100샷이 차감됩니다.

05

발렌타인 멤버십 클럽 내 다양한 이벤트 참여 및 스폰서 활동

멤버십 클럽 회원들을 위한 다양한 월별/분기별 이벤트가 진행되며, 이벤트를 통해 푸짐한 프리미엄 혜택을 드립니다. 또한 이벤트 게시판을 통해 스폰서 요청이 가능하며, 다양한 파티 및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합니다. 모든 회원 등급에서 참여가 가능하며 샷 차감은 없습니다.

06

회원 가입 시 웰컴 기프트 제공

발렌타인 멤버십 클럽에 가입하시는 회원 분들께 소정의 웰컴 기프트를 드립니다.
또한 제휴 바 등에서 회원 인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회원 번호가 담긴 발렌타인 멤버십 카드를 발급해 드립니다. 발렌타인 멤버십 카드 신청 시 카드 패키지와 발렌타인 미니어처 기프트를 증정해 드립니다.

Ballantine's®
LEAVE AN IMPRESSION

5th. vol. Ballantine's Magazine

매거진 발렌타인은 품격 높은 테이스트와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분들을 위한 프리미어 블렌딩 오브 라이프스타일 매거진입니다. 발렌타인만의 고유한 헤리티지 및 브랜드 뉴스와 함께 하이클래스를 위한 트렌디하면서도 실용적인 양질의 컨텐츠만을 전달합니다.

제호
발렌타인

발행일
April 2, 2013

발행처
페르노리카 코리아 발렌타인 마케팅팀

주소
137-858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28-3 나라빌딩 21층
www.pernod-ricard-korea.com
www.ballantineschampionship.com
www.ballantinesmc.co.kr

Planning & Design
㈜헤즈
www.heaz.co.kr

Edit
㈜헤즈

Photographer
송상섭

〈발렌타인 매거진〉에 실린 글, 그림, 사진은 발행사인 페르노리카 코리아에 저작권이 있으며,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발렌타인 매거진〉 구독 문의 및 안내 02-3466-5700

ELEMENTAL CHLORINE FREE GUARANTEED
본 매거진은 우리의 자연과 환경을 생각하여
무염소 표백펄프(ECF) 친환경 종이를 사용하였습니다.

2013 BALLANTINE'S CHAMPIONSHIP

2013 발렌타인 챔피언십

기간 4.25~4.28

Ballantine's®
LEAVE AN IMPRESSION